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시 주요 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전국 수준의 시험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전 시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여 시험 체제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함은 물론, 학생의 수험 부담을 줄여주고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출제하되, 심화 선택 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수능 시험의 출제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출제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에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영역에 대하여 ‘출제 매뉴얼’을 출간하게 되었다. 영역별 ‘출제 매뉴얼’에는 각 영역의 시험 목표, 내용, 출제 지침, 문항 개발 과정 등이 예시 문항과 더불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학교 수준의 모의시험이나 시·도교육청 주관 연합학력평가, 수능 모의평가 등의 출제시 출제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출제 매뉴얼’을 발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교육인적 자원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연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집필에 참여한 본원 연구원과 집필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린다.

2004.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 I. 시험의 개념과 평가 목표

- 1. 시험의 개념 ..... 5
- 2. 평가 목표 ..... 5

## II. 출제 세부 내용

- 1. 일반 지침과 평가 영역별 지침 ..... 11
- 2. 내용 영역별 출제 범위 ..... 13
- 3. 제작 문항 수 ..... 15
- 4. 배점 원칙 ..... 16

## III. 출제 절차

- 1. 출제 추진 절차 및 일정 ..... 17
- 2. 문항 출제 과정 ..... 17
- 3. 문항 검토 과정 ..... 19

## IV. 문항 개발 방법

- 1. 언어 영역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관련 ..... 22
- 2. 언어 영역의 문항 유형 ..... 23
- 3. 문항 제작 일반 지침 ..... 25
  - 가. 일반적 사항 / 23
  - 나. 지문(자료)의 선정 및 제작 / 24
  - 다. 문두(발문)의 진술 / 25
  - 라. 답지의 구성 및 진술 / 26
- 4. 듣기 문항 개발 절차 및 예시 ..... 29
- 5. 쓰기 문항 개발 절차 및 예시 ..... 37
- 6. 읽기(비문학) 문항 개발 절차 및 예시 ..... 46
- 7. 읽기(문학) 문항 개발 과정 및 예시 ..... 61
- 8. 어휘·어법 문항 개발 절차 및 예시 ..... 68

# I. 시험의 개념과 평가 목표

## ① 시험의 개념

언어 영역 시험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듣기, 쓰기, 읽기 등 우리말 사용 능력을 범교과적인 제재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시험이다.

## ② 평가 목표

### 1) 내용 영역의 평가 목표

#### 가. 듣기

‘듣기’는 여러 형태의 듣기 자료를 듣고 내용을 정확하고 창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 발전시키는 능력이 포함된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며 말하기 전략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능력도 여기에 해당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가 깊다.

듣기·말하기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듣기·말하기의 원리

- ① 목적, 대상, 상황 등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가.
- ② 목적, 대상, 상황 등에 맞게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③ 목적, 대상, 상황 등에 적절한 전략을 이해하고 구사하는가.
- ④ 사용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

#### (나) 듣기·말하기의 실제

- ① 독화(獨話)와 대화(對話)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
- ② 여러 가지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 ③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가.

#### 나. 읽기

읽기는 언어 영역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큰 영역이다. 여기에는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

력과, 그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글의 구조와 내용 등을 재조직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나아가, 문자 읽기뿐 아니라 다양한 그림 읽기, 표 읽기 등도 여기에서 다룰 수 있다. 읽기의 경우 비문학 제재와 문학 제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 평가 내용은 행동 영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읽기 과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단어, 문장, 문단 읽기**

- ① 글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 문단의 의미를 파악하는가.
- ② 부분의 내용을 종합하여 통합된 의미를 구성해 내는가.
- ③ 지식이나 경험, 문맥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상세화하는가.

**(나) 글 전체 읽기**

- 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와 의도를 파악하는가.
- ②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가.
- ③ 글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하는가.

**(다) 읽기 과정의 인식**

- ① 읽기에 필요한 사전 활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하는가.
- ② 글의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이해하며 읽는가.
- ③ 읽기의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 발전시키는가.

**다. 쓰기**

쓰기는 실제로 한 편의 글을 쓰는 활동을 평가하기보다 지필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취한다. 여기에는 문제를 발견하고 내용을 생성하며 조직하는 능력과, 실제로 글을 쓰고 고쳐 쓰는 능력이 포함된다. 쓰기 역시 세부 평가 내용은 행동 영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쓰기 과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계획하기**

- ① 문제를 발견하여 내용을 생성하는가.
- ② 논지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 평가하는가.
- ③ 적절하게 개요를 구성하는가.

**(나) 표현하기**

- ① 문장과 문단을 바르게 쓰는가.
- ② 내용 전개에 타당성과 효과를 고려하며 글을 쓰는가.
- ③ 여러 형식의 문장 표현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가.
- ④ 적절한 문체와 표현 전략을 사용하는가.

**(다) 조정하기**

- ① 글 구조와 내용, 어법 등을 고려하며 글을 고치는가.
- ② 글의 효용성과 가치, 독자를 고려하며 글을 고치는가.
- ③ 쓴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전달하는가.

## 2) 행동 영역의 평가 목표

### 가. 어휘 · 어법

‘어휘 · 어법’에는 이미 알고 있는 어휘의 기억에 의하여 그 뜻을 깨닫고, 모르는 어휘의 뜻을 추리해 내는 능력, 지시적 · 문맥적 · 비유적 의미를 유추 ·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기초적인 한자의 판별 능력이나 고사성어와 같은 관용 표현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또한, 문장과 문단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능력도 어휘 · 어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습득한 어휘의 양을 비롯하여 그 정확하고 창의적인 사용에 이르기까지 관련 되는 모든 능력이 ‘어휘와 어법’의 측정 요소가 된다.

어휘의 정확한 의미는 실제로 사용되는 용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맥과 관련한 상황에서 평가하는 데 비중을 둔다. 어휘간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측정하되 표현과 이해의 양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활동과 관련시켜 측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어휘 · 어법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어휘의 이해와 사용

- ①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 ② 어휘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는가.
- ③ 어휘의 짜임과 의미 변화를 이해하고 탐구하는가.

#### (나) 어휘 용법의 이해와 적용

- ① 어휘의 지시적 ·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 ② 어휘의 비유적 · 관용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 (다) 어법의 이해와 적용

- ① 어법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② 문맥과 문체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가.
- ③ 언어 규범과 예절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④ 문장과 문단을 바르게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가.

### 나. 사실적 사고

사실적 사고란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사실에 맞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읽어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요약하며 글의 연결과 전개 방법 및 글의 종류와 특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나 구성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이 사실적 사고의 측정 요소가 된다. 다만, 수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적 이해 능력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언어 능력으로 간주하여 다른 능력, 예컨대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보다는 비중을 낮추어 측정한다.

사실적 사고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내용의 사실적 이해**

- ① 내용의 정보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 ② 글 전체의 내용과 핵심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가.

**(나) 글의 구조에 대한 사실적 이해**

- ① 글의 구조 단위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 ② 글의 형식적 요소와 사실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다. 추론적 사고**

추론적 사고란 언어의 표현과 이해 과정에서 추론을 통하여 보다 깊고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언어 표현의 내적 연관성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문학 작품과 같은 언어 표현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논리적 추론은 언어 사용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대학에서의 교육이 그 나름의 논리를 통한 객관적인 진리의 발견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요소로는 논리적 규칙에 따른 정의의 방법과 정확한 개념의 연결, 언어가 갖는 모호성과 사고 과정의 오류 등을 배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연역적 사고 과정이나 귀납적 사고 과정과 같은 논리적 추론 과정도 측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논리적 이해 능력을 설명하는 방식은 논리학적일 수도 있고 일반적일 수도 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자연 언어의 표현 형태를 통해서 이 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논리적 약호나 극도로 단순화된 공식에 가까운 형식을 묻는 방식은 논리학 지식의 암기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추론하는 능력은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이다. 경험이 나 사유 면에서 다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읽기 문학 영역의 기본적인 평가 목표이다. 이 능력과 관련하여 내용, 과정, 구조의 추론이라는 세 측면을 측정하며, 사실적 사고 단계를 기반으로 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적 사고보다는 비중을 높여 측정한다.

내용의 추론은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설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밖의 사항까지 추론하고 적용하는 능력까지가 측정 요소가 된다.

과정의 추론은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개입되었는가를 분석적으로 추론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표현된 글에 담겨 있는 전제나 태도를 분석하고,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의도와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능력 등이 측정의 요소가 된다.

구조의 추론은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할 내용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추론함으로써 그 조직을 이해하거나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표현 방식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하거나 의도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등이 측정 요소가 된다.

추론적 사고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내용의 추론**

- ① 언어 또는 사실을 근거로 내용을 미루어 아는가.
- ② 언어 또는 사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줄 아는가.
- ③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과정과 규칙에 맞게 사고하는가.

**(나) 구조의 추론**

- ① 텍스트 구성에 관련된 요소를 적절하게 추리·상상하는가.
- ② 언어 표현에 관련된 요소를 적절하게 추리·상상하는가.

**(다) 과정의 추론**

- ① 처지와 상황을 분명히 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② 의도와 관점을 명확히 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③ 논지 전개에서의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가.

**라.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란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흔히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이에 해당하지만, 비문학적인 글에서도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비판이나 독자들의 태도에 관한 비판 능력 등은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대학 교육이 지식의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능력은 중요한 측정 대상이 된다.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는, 어떤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또는 비평과 관련된 긍정적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때 비판 자체가 어떤 기준에 따라 행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또는 사고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정확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하는 내적 증거와, 언어 사용의 외적, 상황적 국면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과 효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외적 증거가 적용될 수 있다.

정확성이란 언어 사용 장면에서 바르고 확실하게 사고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의 사고가 정밀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측정의 요소가 된다. 적절성이란 언어 사용 장면에서 그 사고 과정이 적절한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고 과정에 나타나는 가정, 원리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구명되었는지가 측정의 요소가 된다. 타당성이란 어떤 언어 사용이 진리 개념에 비추어 타당하며 또 수용할 만한 것인가,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두루 적합하며 보편 타당한가, 혹은 윤리적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사고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측정의 대상이 된다. 효용성이란 언어 사용의 과정 또는 결과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실 또는 현실과 부합하여 풍부한 의미와 교훈성 또는 심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능력 등이 측정의 요소가 된다.

이상의 네 기준은 언어 사용의 내용과 서술의 양면에 걸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의 교육 수준을 감안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에 높은 비중을 둔다. 비판적 사고의 하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내적 증거에 따른 비판**

- ① 내용의 정확성과 내용 전개의 적절성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② 구조와 표현의 적절성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나)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 ① 타당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② 효용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마.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어떤 언어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고차적인 언어 활동이다. 창의적 사고는 언어 활동의 과정에서 자료나 텍스트의 표면에 제시되지 않은 요소를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추론적 사고와 비슷하지만, 추론적 사고가 수평적인 확산인데 비해 창의적 사고는 수직적인 수준 오름(shift-up)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창의적 사고에서는 내용, 구조, 표현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이라는 세 측면을 측정하며, 사실적 이해의 단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창의적 사고는 사실적 이해 능력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에 관한 창의적 수용과 생성에서는 내용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설정하여 주어진 정보를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보로 생성하는 능력까지가 측정의 요소가 된다.

구조에 관한 창의적 수용과 생성에서는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할 내용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조직을 이해하거나 창의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 내는 능력 등이 측정 요소가 된다.

표현에 관한 창의적 수용과 생성에서는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개입되었는가를 분석적으로 추리·상상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표현된 글에 담겨 있는 전제나 태도를 분석하고,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의도와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능력 등이 측정 요소가 된다.

창의적 사고의 하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내용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

- ①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거나 생성하는가.
- ②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응용하거나 새롭게 활용하는가.
- ③ 목적, 대상, 상황 등에 적절한 언어 활동 계획을 세우는가.

### (나) 구조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

- ①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하는가.
- ② 같거나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구성해 내는가.
- ③ 목적, 대상, 상황 등에 적절한 구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가.

### (다) 표현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

- ① 개성적이고 참신한 표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② 여러 가지 수사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 ③ 목적, 대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이해하는가.

## Ⅱ. 출제 세부 내용

### ① 일반 지침과 평가 영역별 지침

#### 1) 일반 지침

-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 면에서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출제한다.
-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출제한다.
- 단순 암기에 의해 답할 수 있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통해 문제를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여 해결하는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며,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출제한다.
- 학교 교육의 경험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 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한다.
- 영역의 중요도를 고려하면서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 수준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 있게 출제하며, 영역별 난이도는 최근 2~3년 간의 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 출제에 사용되는 지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글을 선정하며, 다양한 분야의 글을 통해서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독서 체험이 풍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
- 제한된 시험 시간을 고려하여 양적으로 과도한 지문의 채택을 지양하고, 통합형 지문을 제시하여 지문의 수를 줄이고 지문당 문항의 수를 늘이는 방법이나, 짧은 지문을 통해 문항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모색한다.
- 문항 자체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항은 배제한다.
- 언어 활동의 지엽적 용례보다는 본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 2) 평가 영역별 지침

### 가. 듣기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음성 언어의 청취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듣기 평가는 언어 영역의 중요한 평가 영역의 하나이다. 듣기 문항은 현대 사회에서 음성 언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과 형태의 음성 언어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또한 실제 음성 자료와 유사한 상황으로 자료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화, 강연, 토론, 대사 등을 자료로 삼고, 그 측정의 수준은 사실적 사고보다는 추론적 사고나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나. 쓰기

쓰기는 시험 기술상 대규모로 치러지는 선택형 시험이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로 글을 쓰는 여러 과정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출제 기술을 발휘하여 아이디어의 구상 단계, 계획 단계, 집필 및 표현 단계, 고쳐 쓰기 등에 이르는 글쓰기의 전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글쓰기의 특수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글쓰기의 과정에 적용되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 다. 읽기

읽기는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각 지문에서 어휘·어법,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같이 묻는 방식을 취한다.

- 어휘·어법: 어휘는 의사소통의 기반이기 때문에, 어휘의 습득은 정확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에 속한다. 구절이나 문장, 나아가 글 전체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는 어휘들의 지시적·문맥적·내포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글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다. 어법은 국어에 대한 규칙으로, 적절하고 정확한 어법의 습득은 국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다. 국어의 규칙을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절차적 지식과 관련하여 탐구 활동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초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나아가 고차적인 사고력도 측정하는데, 어휘나 어법 문제를 단독으로 제시하여 묻는 것보다는 문장 속에서 문맥적 의미를 묻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또한 절대적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할 수 있으며, 언어 지식 즉 문법과 관련된 문제도 다양하게 출제한다.
- 사실적 사고: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해하거나 사실에 맞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면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읽어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요약하며 글의 연결과 전개 방법 및 글의 종류와 특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단순한 속독보다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며, 낯설거나 어려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 추론적 사고: 사실적 사고 능력보다 한 차원 높은 사고 능력으로 언어의 표현과 이해 과정에서 내용, 과정, 구조에 대한 추리 과정을 통하여 더욱 깊고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언어 정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 능력은 다양한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 표현의 내적 연관성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능력과 내용간의 관련성을 긴밀하게 관련지어 전개·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추론적 이해와 표현을 지향하여 치밀한 분석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비판적 사고: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여러 증거에 의해 분석된 것을 바탕으로 그 적절성 또는 가치 등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란 사고의 미흡함에 대한 지적만이 아니라, 평가적 판단을 의미하는 긍정적 판단을 포함하며,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감상의 능력이 여기에 속한다. 비판적 사고 능력에는 적확성, 적절성의 증거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 내적 증거에 따른 비판적 사고 능력과 타당성과 효용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 외적 증거에 따른 비판적 사고 능력이 포함된다. 문학 작품의 감상이나 글에 대한 독자의 태도, 비판적 이해를 측정한다.
-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어떤 언어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고차적인 언어 활동이다. 내용 바꾸기, 바꾸어 표현하기, 새로운 내용 생성하기, 대안 모색하기, 종합하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주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변형과 창조가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 ② 내용 영역별 출제 범위

### 1) 어휘·어법

어휘·어법에서는 어휘의 뜻,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 기초적인 한자, 고사성어 등의 어휘 관련 내용 및 어문 규범과 문장, 문단 쓰기, 문맥과 문체 표현 등의 어법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측정한다.

### 2) 듣기

듣기에서는 음성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듣기 능력을 측정한다. 음성 언어 자료는 일회성이 있으므로 집중하여 들어야 하며, 담화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중요하다.

- 일상 대화, 토의, 토론, 광고, 뉴스, 강연 등을 폭넓게 접하면서 내용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이해하기
- 듣는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메모하며 듣는 습관 갖기
- 듣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이나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며 듣기
- 화자의 입장, 관점, 의도를 파악하며 듣기
- 화자가 제시하는 주장이나 근거, 내용의 전개 방식이 적절한지 비판하며 듣기
- 화자의 말하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며 듣기

- 화자의 말하기가 어법과 맥락에 맞는지 평가하며 듣기 등

### 3) 쓰기

쓰기에서는 내용의 생성과 조직, 표현, 고쳐 쓰기 등 글쓰기의 과정과 기본 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등 다양한 목적의 글쓰기에 맞게 내용을 생성·조직·표현하며,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생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리하기
-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여러 매체에서 수집하여 조직하기
-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내용을 생성하여 표현하기
- 자료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글에서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것을 찾아 고쳐 쓰기
- 글을 읽고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고쳐 쓰기
- 글의 개요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평가하기
- 관점이나 표현 방식이 다른 글을 읽고 글의 효과 분석하기 등

### 4) 읽기(문학)

읽기(문학)에서는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이 지문으로 제시된다.

- 주제 의식, 서술 방식 등에 주의하며 다양한 문학 작품을 두루 읽기
- 인물의 성격과 심리, 사건의 진행 과정, 갈등의 본질, 작가의 태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 사건과 배경,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 작품과 작품 비평, 고전 문학 작품과 현대 문학 작품 등을 서로 관련지어 감상하고 문학사를 이해하기
- 작품에 나타난 언어의 함축적 의미와 화자의 심정 등을 추측하기
- 작품 속의 상황을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파악하기
- 문학 작품이 주는 효용성을 생각하며 감상하기 등

### 5) 읽기(비문학)

언어 영역 시험은 그 목적과 본질상 다양한 교과, 다양한 학문 영역의 통합을 추구한다. 출제 과정 역시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 전공자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전공자도 참여하며, 다루는

주제와 소재의 제한은 없다.

- 인문·사회: 인간의 본질과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예) 역사, 철학, 종교, 윤리, 정치, 경제, 사회, 인류, 법, 지리, 언론, 환경 등
- 과학·기술: 자연 현상 및 수리(數理),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예)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의학, 공학, 농학, ICT 등
- 문학·예술: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예술 형식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예) 시, 소설, 희곡,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공예, 미학 등
- 생활·언어: 언어 그 자체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생활 및 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예) 언어와 기호, 국어의 특징, 의사소통, 마스크, 일상 대화 등

읽기(비문학)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배경 지식을 넓히고,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리하며 읽는 습관 갖기
- 평소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며 꼼꼼하게 읽는 습관 갖기
- 폭넓고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생활, 언어 등의 분야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이나 대상을 이해하기
-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이해하기
- 글의 내용, 내용의 전개 방식, 표현의 적절성에 대하여 비판하며 읽기
- 글을 읽을 때 모르는 어휘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문맥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백과사전, 책,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개념과 기능 파악하기 등

### ③ 제작 문항 수

#### 1) 일반 원칙

- 문항 수와 시간은 종전의 체계에 준하여 60문항 90분으로 한다.
- 영역별 문항 수는 듣기 6문항, 쓰기와 읽기 합하여 54문항, 총 60문항으로 한다.
- 문항 출제 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한다.
- 듣기 6문항은 약 12분을 별도로 부여하고, 쓰기와 읽기의 54문항에 나머지 시간을 배당하여 문항당 문제 풀이 시간은 대략 1분 30초 정도로 잡는다.

#### 2) 듣기 문항 제작 원칙

### 가. 문항 수 및 시간

교시	영역	문항 수	시 간
1	언어 영역	6	1교시 시작 시간(08:40)부터 15분 이내

### 나. 기본 원칙

-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국어 과목이나 국어 생활 또는 화법 과목 등의 교육과정 문서 등에 나타난 세부 평가 목표를 참조한다.
- 가능하면 실생활에서의 음성 언어가 갖고 있는 실상에 근접한 자료를 통해 측정한다.
- 일상 생활을 중심으로 한 대화, 좌담, 연설, 강의 등을 주된 자료로 활용한다.

## ④ 배점 원칙

- 문항당 점수는 교육내용 상 중요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 수준, 난이도, 문제 해결 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1점, 2점, 3점 등으로 차등 배점한다.
- 원점수의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3점 문항의 비중은 언어 영역 총점의 5% 이내로 한다.

## Ⅲ. 출제 절차

### ① 출제 추진 절차 및 일정

전체 영역의 출제 과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계획한 출제 일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대략적인 출제 업무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출제 준비 단계, 문항 제작 및 준비 단계, 문제지 편집 단계, 특별 관리 대상자 문항 개발 단계, 정리 단계가 그것이다. 이들 각 단계는 물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과정 과정에 끼여들기도 한다.

출제 준비 단계는 출제 본부 입소식, 출제위원단 전체 회의, 출제위원단 워크숍과 영역별 워크숍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출제 준비가 완료되면 문항 제작 및 검토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문항 제작 및 검토 단계는 성공적인 문항 출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출제 계획, 문항 제작과 검토, 운문 등 여러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출제와 검토, 마무리의 세 과정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② 문항 출제 과정

언어 영역은 내용 면에서는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측정하고, 기능 면에서는 고교 교육 성취도와 대학 교육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에 유의하여 문항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항 출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출제의 일반 원칙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시되어야만 한다. 먼저 언어 영역의 전체 성격과 관련하여 출제 방향을 시사하는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학교 교육을 통해 성취한 다양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 대학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 평가를 지양하고, 학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속도 검사(Speed Test)가 아닌 역량 검사(Power Test)가 되도록 출제한다.
-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통해서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측정

하도록 출제한다.

- 언어 활동의 지엽적 용례보다는 본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화된 상식이나 기초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시험에 대한 특별한 준비 없이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으로는 ‘역량 검사’를 강조한 것이라든지, 언어 활동의 본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언어 영역의 시험이 단지 지문을 빨리 읽는 속도 검사로 그쳐서는 안 되고, 문항 하나 하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력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량 검사 강조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의미 없는 글을 대상으로 문항을 제작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면서도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문 내지는 자료로 문항을 출제하여, 문제를 풀면서 다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본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강조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지문 선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단순 사실이나 주장을 평면적으로 담고 있는 지문보다 필자의 주장이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문을 선정한다.
- 내용과 형식 면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을 선정한다.
- 1종, 2종의 각 과목 교과서 글도 지문으로 사용하여 출제한다.

한편, 문항 출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가능한 한 문제 상황 중심으로 통합 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 통합 교과적 출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보기, 하기 등의 영역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출제한다.
- 듣기, 쓰기, 읽기 영역 문항은 독립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으며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
- 문두와 답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변별력을 높이도록 한다.
- 기출제된 문항(워크숍에서 제작된 문항, 각종 모의고사 문항, 방송이나 방송 교재에서 다룬 문항, 신문 게재 문항, 문제집 및 참고서 문항 등)과 동일한 형태로 출제하지 않는다. 단, 문학 지문의 경우에는 중복 출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문항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문항 제작은 듣기, 쓰기, 어휘·어법, 비문학 읽기와 문학 읽기 영역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문학 읽기 영역의 경우에는 출제 당시의 구성원이나 출제 방향에 따라 문항 구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이하 ‘6월 모의평가’)에서는 현대시와 고전시를 복합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에서도 이와 같이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자연과학 분야의 적성을 보이는 학생들이 특히 문학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문학의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항 형태이다.

그러나 현대시와 고전시를 결합하는 방식을 고정된 문항 제작 양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

다. 문학의 비중을 줄인다고 할 때, 어느 한 장르가 문항 출제 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현대 시와 고전시가 아닌 다른 장르가 복합 지문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필과 고전시가가 결합된 형태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수필·희곡의 경우에도 두 갈래를 모두 출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한 장르만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개별 출제자는 평가요소를 구체화하고 지문을 선정하거나 문항에 활용할 소재를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선정한 이유와 장단점, 문항 출제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출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대략적인 문제의 윤곽 및 출제 의의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그러므로 출제자는 자신이 출제할 영역의 기출 문항을 점검해 보고, 어떤 평가 요소를 어떤 지문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형태로 물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상을 마련해 두어야만 한다.

해당 영역과 관련한 문제 구상이 끝나면 그 내용에 대한 공동 검토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른 출제자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문항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면 해당 출제자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 지문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문제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문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문항 출제에 들어가는데, 이때에는 문두와 답지, 자료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역시 각각의 문항에 대한 출제자 전원의 상호 토론과 해당 문항 출제자의 답변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논리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자료나 문항, 교육적 가치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자료나 문항에 대해서 걸러 내는 작업이 병행된다. 만약 이 단계에서 제시하였던 문제를 포기하게 되면 지문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언어 영역 문항 출제에서는 문항 출제와 문항 검토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문항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출제자 전원이 합의해 가면서 완성하기 때문에 출제자의 개별 문항 제작 작업과 다른 출제자의 검토 작업이 병행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문항 검토 과정

검토자가 문항을 검토할 때에는 몇 가지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먼저 출제 전반과 관련하여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출제되었는가?
- 출제 계획표를 고려하여 출제하였는가?
- 시중 참고서나 모의고사, 학원 교재, 신문 등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항은 없는가?
-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없는가?
- 출제 원칙에 맞게 출제되었는가?
- 난이도와 변별도는 적절한가?
- 단순 암기만으로 능히 풀 수 있는 것은 없는가?
- 특정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문두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언어 영역에서 말하는 문두는 답지와 지문, 보기, 조건 등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 정답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정답에 대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가?
- 부정문으로 표현된 문항의 경우, 긍정문으로 바꾸어 묻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 문두가 너무 길어서 문두의 해석 자체가 부담이 되지는 않은가?

문두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답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답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답지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것은 없는가?
- 문두나 답지의 문장 표현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것은 없는가?
- 답지끼리 중첩되는 것은 없는가?
- 두 개 이상의 답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로 인하여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것은 없는가?
-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답지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가?
- 답지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가?
- 정답이 특정한 답지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 배점에 비하여 문제 해결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긴 것은 없는가?

답지 가운데에서도 정답지나 오답지냐에 따라서 검토할 내용은 달라진다. 정답지를 검토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관점에 따라 오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 묻는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너무 뻔한 답지가 아닌가?
- 지문이나 문두와 관계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은가?
- 정답 시비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가?

오답지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답지에 비해 너무 눈에 띄는 오답지는 없는가?
- 관점에 따라 정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 오답지는 모두 문두나 보기, 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 오답지의 매력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답지는 문항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검토 요목을 중심으로 답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 좋은 문항이 제작될 수 있다.

언어 영역의 경우에는 문두와 답지 못지않게 지문과 보기 등도 문항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지문이나 보기 등에 대해서 점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지문의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쉽지는 않은가?
- 지문의 양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지문이나 보기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가?

문항에 대한 검토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출제자와 검토자의 의견 교환을 위한 시간은 늘어날 수가 있다. 출제자와 검토자 간에 그 문항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어 합리적으로 문항이 수정된 후에야 비로소 검토 업무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항 검토 과정에서 검토자의 역할은 막중하다. 검토자는 고등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검토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여 문항 수정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식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검토자는 고등학교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교사들로 구성되므로, 검토자 전원이 오답을 한 문항은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Ⅳ. 언어 영역 문항 개발 방법

### ① 언어 영역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관련

교수·학습과 관련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신은 중등 교육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암기 위주의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특정한 교과별 시험이 아니라 통합 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한다는 점과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 고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언어 영역에서는 종래의 암기식 평가를 지양하며,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과의 일대일 대응보다는 교수·학습의 내용과 평가 목표가 일반적 차원에서 조응하는 방식의 평가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어 영역은 출제에서 평가 요소를 교과목 개념이 아니라 평가 요소의 개념으로 명시하였고, 지식 그 자체보다는 언어를 통한 사고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측정 자료를 통합적으로 포괄하여 언어의 모든 제재를 출제의 자료로 삼고 있다. 언어 영역은 듣기·쓰기·읽기라는 내용 영역에서, 보편적이며 전이력이 높은 사고력 습득이라는 학습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발전된 학력 고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영역 평가 체계의 특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행동 영역의 평가 목표가 사고력과 관련된 다소 일반적인 범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것이 종래의 평가 체제에 비해서 진일보한 평가 방식임에는 틀림없지만 여전히 선다형이라는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언어 영역과 국어 교과 평가 목표가 어떤 점에서 같으며, 또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의 학습 목표와 언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국어 교과의 평가 목표와 교수·학습 목표가 언어 영역의 그것과 크게 보아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둘이 동일한 범주인 것은 아니다. 국어 교과의 평가 목표 중 일부만이 언어 영역의 평가 목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어 과목에 속하는 여러 과목(국어,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화)의 평가 목표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언어 영역의 두 가지 특성과 합치되는 부분만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목표가 될 수 있다. 언어를 통한 사고력의 측정에 부합하며, 문항 형식 면에서 선다형 형식으로 제한된 것만이 언어 영역의 평가 목표에 합당한 것이 된다는 뜻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목표와 국어 교과의 교수·학습 목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의 송환 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송환 작용은 학습 목표로 설정된 원래의 목표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첨가나 삭제 혹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영역의 평가 목표 중에서 학습 활동 상 어느 정도 보편성이 있고, 교수·학습이나 평가에서 출현 빈도가 높아 언어 영역 출제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문항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 목표는 결국 교육 목표와 내용의 일치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설정된 문항 유형은 문항 제작상의 형식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지도서에 설정된 평가 목표나 학습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언어 영역 문항 유형의 내용적 관련 요인을 충실히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영역에서 설정한 문항 유형은 교육과정 상 근거를 가지는 하위 학습 목표들을 거느린 어느 정도 일반적인 학습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학습 목표의 도달점 행위(활동)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라면, 평가 목표는 과거와 연결된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실제적 행위의 위상과 관련해서 기술된 것이다. 그러므로 도달된 능력의 수준을 상정할 때 양자는 동일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 ② 언어 영역의 문항 유형

언어 영역 문항은 동일한 평가 목표를 추구하고 동일한 제재를 이용하더라도 출제 과정에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 동안 언어 영역 출제 과정에서도 교수·학습 방법을 선도하고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문항을 제작하는 노력을 해 왔다.

언어 영역의 문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문항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인보다 문항이 보여 주는 형식에 초점을 두고 문항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형식이 어떠한 문항의 내적 요인에 의해 문항 유형이 결정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분류하는 것이다.

1994년도부터 시행한 대수능 언어 영역 문항은 형식 면에서 종합적이고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언어 영역 문항 형식은 선택지의 답지가 다섯 개인 ‘오지 선다형’이며, 문항 제작의 원리에 따라 형식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문항 유형을 정하는 형식적 요인으로는 여러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소재를 무엇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추가로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여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활동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여부, 어떠한 사고력을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 1) 소재의 성격에 따른 유형

문항의 문두나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현형만 보아도 소재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문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재의 성격을 수업 이외의 생활에 초점을 두었는지 수업 상황이나 교과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는지에 따라 ‘생활 중심형’과 ‘교과 중심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생활 중심형이란 소재가 교과 상황이 아니라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장면이 포함되는 등 생활 중심의 소재로 구성된 문항을 말한다. 주로 듣기와 쓰기 평가 문항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교과 중심형이란 교과 내용이나 수업 상황이 주된 소재로 구성된 문항을 말한다.

### 2) 자료 활용 여부에 따른 유형

지문과 문두와 답지 외에 자료를 추가하였는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문두만으로 사고 과정을 유도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료 추가형’과 ‘문두 독립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자료 추가형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문 이외의 자료가 추가되는 문항 유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료로는 또 다른 지문이 등장할 수도 있고, 관련되는 표나 그림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 문두 독립형이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문두(또는 발문)만으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사고 과정을 유도하는 일반적인 문항 유형을 말한다.

### 3) 조건 제시 여부에 따른 유형

문두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자료로 제시된 조건이 있는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유형인지에 따라 ‘조건 부과형’과 ‘조건 부재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과형이란 조건이 문두나 별도의 자료에 부가되어 복합적인 사고를 유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문항 유형을 말한다. 문두에 부가될 경우에는 흔히 “~을 근본으로 각색한다면”, “~로 바꿀 경우”, “~한다고 할 때”라는 진술로 표현될 수 있다. 별도의 자료로 제시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기>, <조건>, <유의 사항> 등의 형태로 제시된다. 조건 부재형이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문두의 진술만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문항 유형이다.

### 4) 활동의 통합성 여부에 따른 유형

교과, 영역, 제재, 매체의 활동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요구되는 통합적 활동이 없는지에 따라 ‘통합형’과 ‘단일형’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통합형은 다시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교과 통합형’, ‘영역 통합형’, ‘제재 통합형’, ‘매체 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과 통합형이란 단일한 교과의 내용만이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 내용이 국어를 중심으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문항 유형을 말한다. 영역 통합형이란 언어 영역에서 국어과 교육과정 상의 내용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이 단일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와 쓰기, 읽기와 쓰기 등의 영역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문항 유형을 말한다. 제재 통합형이란 단일한 제재가 아니라 시와 산문, 문학과 비문학 등 제재가 되는 텍스트가 복합적으로 통합된 문항 유형을 말한다. 매체 통합형이란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매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영상 매체 등이 문항에 직접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문항 유형을 말한다.

### 5) 사고의 성격에 따른 유형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의 과정이 탐구의 절차를 요구하는지, 탐구의 과정이나 절차 없이 이해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탐구형’과 ‘이해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탐구형이란 사회 현상, 언어 현상, 일반 현상 등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구의 절차를 요구하는 문항 유형을 말한다. 이해형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구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해의 절차를 요구하는 문항 유형을 말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 기준과 문항 유형,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항 제작 원리에 따른 문항 유형의 분류

분류 기준	문항 유형	개념적 정의	
소재의 성격	생활 중심형	• 수업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장면이 적극적으로 문항에 수용된 문항 유형	
	교과 중심형	• 수업 상황이나 교과 내용 중심으로 장면이 구성된 문항 유형	
자료 활용 여부	자료 추가형	• ‘지문+문두+답지+자료’로 구성 • 자료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항 유형	
	문두 독립형	•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문두만으로 사고 과정을 유도하고 있는 일반적인 문항 유형	
조건 제시 여부	조건 부과형	• ‘조건(문두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자료로 제시 가능)’이 부가되어 복합적인 사고를 유도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에 작용하는 문항 유형	
	조건 부재형	•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문항 유형	
활동의 통합성 여부	통합형	교과 통합형	• 국어,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 내용이 국어를 중심으로 하여 복합적으로 관여된 문항 유형
		영역 통합형	• 듣기와 쓰기, 읽기와 쓰기 등 국어과 영역이 복합적으로 통합된 문항 유형
		제재 통합형	• 시와 산문, 문학과 비문학 등 텍스트(제재)가 복합적으로 통합된 문항 유형
		매체 통합형	• 그림, 사진, 만화 등의 시각 매체,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영상 매체 등이 적극적으로 문항에 수용된 문항 유형
	단일형	• 통합적인 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단일한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 유형	
사고의 성격	탐구형	• 사회 현상, 언어 현상, 일반 현상 등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구의 절차를 요구하는 문항 유형	
	이해형	• 탐구의 과정이나 절차 없이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 유형	

### ③ 문항 제작 일반 지침

#### 가. 일반적 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은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선다형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언어 영역의 평가 문항은 언어를 매개로 한 학생의 사고 능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도록 지문, 문두(발문), 답지 등을 다채롭고 깊이 있는 형식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언어 영역의 평가 내용이 단순히 고교 교육 과정의 이수 여부에 대한 성취도 검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고차적인 사고 능력과 이를 매개하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의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능 언어 영역은 상당한 정도로 학력 검사와 적성 검사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교육 과정의 교과목 가운데에서 이러한 언어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교과는 ‘국어’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국어’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등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꾀하고 있고, 11학년 이후에는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생활’, 심화 선택 과목인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을 통하여 국어 사용 능력의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 언어 영역에서 평가 목표와 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교과목은 ‘국어 교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영역은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언어 영역의 평가 내용이 국어나 문학 현상에 대한 이해와 탐구에 국한되지 않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생활, 언어 등 대학 수학 능력과 연계되는 범교과적인 소재와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 영역의 출제 범위는 여타 영역과 달리 특정 교과목이나 학년 수준에 직접적으로 국한하지 않고 있다.

수능 언어 영역의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은 앞서 II장 3절에 제시한 평가 목표의 이원분류표(행동 영역, 내용 영역)에 잘 나타나 있다. 내용 영역의 ‘듣기, 쓰기, 읽기, 어휘·어법’ 등은 언어 영역 평가의 소재적 측면을 언어 활동을 축으로 나타낸 것이고, 행동 영역의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은 각 언어 활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행동 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언어 영역에서는 객관식 문항 유형 중 선다형 문항으로서 통상 5지 선다형으로 출제되어 왔다. 5지 선다형은 문두와 5개의 답지로 구성되는데, 언어 영역은 담화 또는 텍스트로 존재하는 언어를 다루는 특성 때문에 문두와 답지 외에 음성 녹음 자료, 지문, 그림, 도표 등의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문항을 제작한다.

선다형 문항의 장점으로는 첫째, 문항 형식에 융통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단순한 정보나 지식뿐 아니라 본 문항 유형을 변형시켜서 추리력, 판단력, 비판력 등을 측정하는 데 적용하기가 쉽다. 둘째, 채점의 용이성과 객관성을 들 수 있다.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채점이 일률적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채점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는다. 반면, 선다형 문항의 단점으로는 정교한 문항 제작의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좋은 문항을 제작하기 위하여 문항 제작에 대한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평가 문항 제작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을, 지문(자료)의 선정과 제작, 문두(발문)의 진술, 답지의 구성과 진술, 추가 자료의 포함 여부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나. 지문(자료)의 선정 및 제작

언어 영역에서 지문(자료)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적 의의를 고려하여 엄선하여야 한다. 지문은 인문적 깊이와 생활상의 필요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춘 글을 선정한다.

- 삶의 경험과 사색이 응축된 글
- 현대적인 관점에서 계승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을 담은 고전
- 풍부한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글
- 논리적·구성상의 엄밀성, 내용상의 풍부함 등 일반적인 좋은 글의 요건이 두루 갖추어져 글쓰기의 모범을 보이는 글
- 치밀한 사고와 엄밀한 논리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글

- 글 자체가 탐구 정신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읽기 과정 자체를 통하여 사고의 폭을 넓혀 주고, 사고력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글
- 단순 사실이나 주장을 평면적으로 담고 있는 지문보다 필자의 주장이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문을 선정한다.
- 내용과 형식 면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을 선정한다.
- 가능한 한 문제 상황 중심으로 통합 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문은 배제하도록 한다.

-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 혹은 여성, 노인, 장애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
- 논쟁의 여지가 있는 민감하거나 자극적인 내용
- 지나치게 난삽한 내용이나 학계에서 공인되지 않은 학설을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진리인 듯 기술한 내용
- 논쟁의 대상인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옹호만 하거나 비난하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내용

#### 다. 문두의 진술

문두(발문)은 문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의문문의 형태로 진술한 것으로서 수능 언어 영역의 문두의 내용은 평가 목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 읽기의 기초 능력을 요구하는 문두: 어휘, 관용 표현, 어법, 문단
- 글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두: 세부/전체 내용의 확인, 정보간의 관계 파악
- 글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을 찾아내게 하는 문두: 전제, 생략된 어구/내용 추리, 문맥 파악
- 글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게 하는 문두: 적용 사례 찾기, 새로운 이론 구성, 다른 상황으로의 유추 적용
- 필자와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문두: 의도 추리, 파급 효과의 예측
- 글의 짜임과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문두: 글 구조 파악, 논리적 관계 파악, 서술 방식 파악
-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요구하는 문두: 논지/표현의 타당성과 적절성, 추론의 논리성
- 보편적 상식과 가치관이 필요한 문두: 글의 가치 판단

문두(발문)의 진술은 평가 목표, 문제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험자가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사항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진술한다.
- 문두에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간명하게 제시되도록 세심하게 고려한다.

## 라. 답지의 구성 및 진술

답지의 구성 방식은 평가 목표 및 지문(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 지문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답지: 문단의 핵심 파악, 어구의 의미 파악, 지시어의 의미 파악, 정보 간의 관계 파악
- 지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답지: 내용의 일치/불일치 여부 파악
- 지문의 내용을 일반화한 답지: 속뜻 추리, 문단의 성격 파악, 내용의 요약적 파악, 주장/주제 파악, 일반적 원리 유추
- 지문과 관련해 새로 만들어 낸 답지: 유사한 사례 찾기, 비판적 이해

이러한 유형들을 답지로 진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문두와 관련하여 답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진술하여야 한다.
- 문장 표현이 불필요하게 장황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답지끼리 서로 간섭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답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 답지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 정답이 특정 번호에 편중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답지의 길이가 유별나게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배점에 비하여 문제 해결 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답지는 일반적인 제시 원칙에 따라 제시하되 학생이 획득한 언어지식의 변별성을 측정하는데 알맞도록 사례 깊게 제작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 정답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오답 시비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 답지간 간섭이 배제된 답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정답의 명확성에 비추어 정답이 두 개이거나, 오답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 정답임을 알려주는 지나치게 뚜렷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 답지의 길이를 고려하여 답지가 순서대로 배열되었는가?
- 시간적 내용 전개에 위배되지 않게 답지가 순서대로 배열되었는가?

정답지와 오답지의 적절성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 〈정답지〉

- 정답이 너무 표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가?
- 지문이나 문두와 관계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은가?

- 관점에 따라서 오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 정답 시비의 소지는 없는가?

〈오답지〉

- 정답에 비해 너무 생소하거나 이질적인 것은 없는가?
- 관점에 따라서 정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 오답지는 모두 문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인가?

## 4 듣기 문항 개발 과정 및 예시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음성 언어의 청취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듣기 평가는 언어 영역의 중요한 평가 영역의 하나이다.

‘듣기’는 여러 형태의 듣기 자료를 듣고 내용을 정확하고 창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 발전시키는 능력이 포함된다. ‘듣기’ 영역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며 말하기 전략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능력도 포함하는 등 넓은 의미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내용상 듣기·말하기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듣기 영역의 문항 제작에서 특징적인 것은 듣기 지문에 다양한 담화 유형 또는 장르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어떤 장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즉, 어떤 담화 상황과 관련지어 문항을 제작하는가에 따라 문항 제작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듣기 영역의 문항 제작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평가 목표이지만 담화 유형 선택도 문항 제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듣기 영역의 일반적인 제작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가. 단독 문항의 제작

듣기 문항을 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평가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어떤 담화 상황과 관련지어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6월 모의평가 듣기 영역에서 ‘어법 상의 오류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듣기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문항을 제작하는 첫 단계에서 출제위원은 ‘어법 상의 오류 파악’이라는 평가 목표를 ‘오락 프로그램의 인터뷰’라는 담화 상황과 관련지어 문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다. 다음은 출제위원이 대본과 함께 제출한 듣기 평가 문항이다.

[2]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DJ(여) : 오늘은 인기그룹 ‘수능짱’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수12 : 안녕하세요. 그룹 ‘수능짱’입니다.  
 DJ(여) : 오늘 방송으로 처음 뵈는데.. 와.. 청소년들에게 어필하는 꽃미남들이시네요.  
 가수1 : 감사합니다. 우리 코디 누님들이 다 꾸며주신거죠 뭐. (하하)  
 가수2 : 맞아요. 처음 그룹을 결성한다고 진우를 봤는데, 외모가 참 난감하더라구요. (하하)  
 지금은 용 됐죠, 용.  
 가수1 : 어허, 너도 처음에 만만치 않았어. 저도 민우와 같은 팀이 되면 제 외모가 확 살 것 같아서 같이 팀하자고 꼬드겼어요.

DJ(여) : (호호) 두 분 모두 재미있는 분들이시군요. 그럼 이제 새 음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음반의 컨셉은 뭐죠?

가수1 : 저희 이번 음반 컨셉은 랩의 고급화입니다. 기존 흑인 랩은 아무래도 하층민의 것이고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백인들의 고급스런 랩을 가미하여 우리식 랩 음반을 만들어 냈습니다.

DJ(여) : 아 그렇군요. 이제 음반 이야기 말고 ‘수능짱’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져 보기로 하죠.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여친이 있는지요?

가수들 : 없습니다.

DJ(여) : 진짜? 방송용 말고. 솔직히 답변 좀 해주세요.

가수들 : 진짜 없습니다. 소개시켜 주세요.

DJ(여) : 네, 어쩔 수 없죠. 믿을 수 밖에. 그럼 방송 들으면서 ‘수능짱’에 대한 또다른 궁금한 점은 우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거나 지금 당장 펠 날려주세요. 그럼, ‘수능짱’ 새 음반 중에서 노래 한 곡 들겠습니다.

2. (물음) 방송 출연자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그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릇된 고정관념으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통신 언어의 사용으로 통달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 ③ 어색한 외국어나 신조어로 국어의 고유성을 훼손하고 있다.
- ④ 선정적인 어휘 사용으로 재미나 호기심만을 자극하고 있다.
- ⑤ 비속한 어휘나 반말의 사용으로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

출제위원단에서는 지문, 문두, 답지를 다듬는 데 논의를 집중하였다.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문두에서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답지에서는 ①의 ‘그릇된 고정 관념’과 ‘편견’의 의미를 좀 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의 ‘통달’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③에서 ‘어색한 외국어’와 ‘국어의 고유성’이 나타내는 의미가 모호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답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②의 내용이 언어 사용의 규범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 ④의 ‘호기심만을’에서 ‘만을’이 ④가 오답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④, ⑤에서 조사 ‘나’를 ‘와’로 교체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출제자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의 아이디어를 정교화한 후 다음과 같이 문항을 수정하였다.

[2] 이제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DJ(여) : 오늘은 인기그룹 ‘바우와우’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수12 : 안녕하세요. 그룹 ‘바우와우’입니다.

DJ(여) : 오늘 처음 뵙는데……. 와, 청소년들에게 어필하는 꽃미남들이시네요.

가수1 : 부끄부끄. 우리 코디 누님들이 다 꾸며 주신 거죠 뭐. (하하)

가수2 : 맞아요. 처음 그룹을 결성한다고 바우를 봤는데, 외모가 참 난감하더라구요. (하하)

지금은 용 됐죠, 용.

가수1 : 허걱, 너도 처음에 만만치 않았어. 저도 와우와 같은 팀이 되면 제 외모가 확 살 것 같아서 같이 팀하자고 꼬드겼어요.

DJ(여) : (호호) 두 분 모두 재미있는 분들이시군요. 그럼 이제 새 음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요. 이번 음반의 컨셉은 뭐죠?

가수1 : 저희 이번 음반 컨셉은 랩의 고급화입니다. 기존 흑인 랩은 아무래도 싸구려 하층민의 것이고 우리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백인들의 고급스런 랩을 가미하여 우리식 랩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DJ(여) : 아, 그렇군요. 이제 음반 이야기 말고 '바우와우'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져 보기로 하죠.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여친이 있는지요?

가수2 : 없습니다.

DJ(여) : 진짜? 방송용 말고. 솔직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가수들 : 진짜 없습니다. 소개시켜 주세요.

DJ(여) : 네, 어쩔 수 없죠, 믿을 수밖에. 그럼 방송 들으면서 '바우와우'에 대한 또 다른 궁금한 점은 우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거나 지금 당장 댐 날려 주세요. 그럼, '바우와우' 새 음반 중에서 노래 한 곡 들겠습니다.

## 2. (물음) 방송 출연자들의 언어 사용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신언어의 사용으로 청취자의 계층을 제한하고 있다.
- ② 자극적인 어휘 사용으로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고정관념이 담긴 언어 사용으로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속한 어휘와 반말의 사용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⑤ 외국어와 신조어의 어색한 사용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하여 검토자는 정답은 분명하나 나머지 답지에서 지문 내용과 답지가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번은 통신언어의 성격이 불분명하고('부끄부끄' 한 번만 인용됨), 통신 언어 사용이 청취자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③번은 '싸구려 하층민' 등을 언급한 것은 고정 관념이 담긴 언어 사용이 아니라, '고정 관념'이라고 보아야 하고, ⑤번은 '신조어'로 볼 수 있는 것이 분명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답지가 분명한지, 각 답지에 표현된 내용이 듣기 지문 및 발문과 관련하여 맞고 그릇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게 진술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제자는 검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조어,' '통신 언어' 등이 나타내는 의미의 모호성을 피하고자 '인터넷 상의 은어,' '비속한 어휘,' '반말' 등을 사용하여 답지를 수정하였고, 나머지 답지도 표현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윤문하였다. 그리고 지문은 윤문 과정에서 "와, 청소년들에게 어필하는 꽃미남들이시네요."를 "와, 청소년들에게 어필하는 외모에 의상까지, 참 멋지시네요."로 바꾸었다. 다음은 이 문항의 최종 제출본이다.

### [2]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DJ(여) : 오늘은 인기 그룹 '바우와우'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수12 : 안녕하세요. 그룹 '바우와우'입니다.

DJ(여) : 오늘 처음 뵙는데……. 와, 청소년들에게 어필하는 외모에 의상까지, 참 멋지시네요.

가수1 : 뭐, 우리 코디 누님들이 다 꾸며 주신 거죠. (하하)

가수2 : 맞아요. 처음 그룹을 결성한다고 바우를 봤는데, 외모가 참 난감하더라구요. (하하) 너 참 용 됐다, 용.

가수1: 허걱, 너도 처음에 만만치 않았어. 저도 와우와 같은 팀이 되면 제 외모가 확 살 것 같아서 같이 팀 하자고 꼬드겼어요.

DJ(여) : (호호) 두 분 모두 재미있는 분들이시군요. 그럼 이제 새 음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음반의 컨셉은 뭐죠?

가수1 : 저희 이번 음반 컨셉은 랩의 고급화입니다. 기존 흑인 랩은 아무래도 싸구려 하층민의 것이고 우리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백인들의 고급스런 랩을 가미하여 우리식 랩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DJ(여) : 아, 그렇군요. 이제 음반 이야기 말고 ‘바우와우’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하죠. 두 분 개인적인 취미가 뭔지 궁금하네요.

가수2 : 전 번개 쳐서 랩 동호회에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가수1 : 전 방송 없으면 주로 게임을 하죠. 게임 폐인이예요.

DJ(여) : 아, 네. 그럼 방송 들으면서 ‘바우와우’에 대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거나 지금 당장 멜 날려 주세요. 그럼, ‘바우와우’ 새 음반 중에서 노래 한 곡 들겠습니다.

## 2. (물음) 방송 출연자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외국어를 자주 사용하여 우리말의 고유성을 해치고 있다.
- ②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비속한 어휘와 반말을 사용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④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터넷상의 용어 사용으로 특정 청취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력이 떨어진다.

### 나. 세트 문항의 제작

이번에는 하나의 듣기 지문에 두 문항이 연결되어 있는 듣기 세트 문항의 제작 절차를 살펴보기로 하자. 통상 세트 문항은 듣기 5~6번에 배치되는데, 하나의 듣기 지문에서 두 개의 문항을 출제하기 때문에 듣기 지문의 구성이나 문항별 평가 요소의 선정에서 단독 문항과는 다른 출제 절차가 요구된다.

200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는 구술·심층 면접 상황을 지문으로 구성하여 수험생이 교수의 질문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가 목표를 문항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출자자가 최초로 제시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5~6] 이번에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술·심층면접 상황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면접 번호 1번 김영수입니다.

여교수1 : 자기 소개서를 보니 사회과목을 좋아하나 보지?  
 남학생 :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신문을 보면서 사회과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내 문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교수2 :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나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또 이유는 뭘지 말해 보게.  
 남학생 : 세계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도 존경하는 분도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면서 동네에서 이장일 하시는 데 힘들어도 내색을 안 하시고 고향을 지키면서 마을에 힘든 일을 많이 하십니다. 또 틈틈이 생활이 어려운 동네 어르신들을 돌봐 드리면 즐겁게 생활하십니다. 저도 아버님처럼 이웃을 도우며 성실하고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여교수3 : 요즘 신문에 에 대한 기사가 가끔 나는데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남학생 : 는 비정부기구를 의미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정착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교수4 :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남학생 : 경영학과에서 기업경영, 마케팅, 재무·인사관리 등을 공부해서 훌륭한 전문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교수4 : 현대사회에서 전문 경영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남학생 : 먼저 도덕성과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관행처럼 되어 온 분식회계나 정경유착 등을 버리고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직원은 물론 소비자, 주주에게 신뢰받는 세계적인 경영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영에 필요한 실무 능력과 함께 직원과 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공동체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교수4 : 임금 피크제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게.  
 남학생 : 임금 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그 때의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 나가는 대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년 보장 제도입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제도지만, 기업 측에서 보면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지닌 인력을 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 줄더라도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입니다?)

5. (물음) 교수가 질문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인성 및 자질 ⇒ 시사지식 및 사고력 ⇒ 전공적성
- ② 학업성취 ⇒ 인성 및 자질 ⇒ 사실적 사고력
- ③ 대학수학능력 ⇒ 사회인식능력 ⇒ 창의적 사고력
- ④ 전인적 사고 ⇒ 폭넓은 사고 ⇒ 조화로운 사고
- ⑤ 가치관 영역 ⇒ 의사소통능력 ⇒ 비판적 사고력

6. (물음) 학생의 대답에 대한 평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나치게 순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② 주장의 전후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
- ③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에 대해 수용적이다.
- ④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⑤ 언어 사용이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 문항에서 출제자는 종래 5~6번 세트 문항으로 토론이나 좌담 장르가 출제되던 상투성을 벗어나,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구술·심층 면접 상황을 지문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술·심층 면접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한번쯤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면접의 진행 상황을 미리 듣기 자료를 통해서 접함으로써 질문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의 방식을 환기하고자 담화 상황을 구술·심층 면접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요소는 구술·심층 면접 상황에서 하나는 면접자의 질문 진행 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면접자가 면접에 임할 때 구사하는 말하기 전략을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 세트 문항에 대하여 출제위원단은 담화 유형과 상황 설정이 대체로 무난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질문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측면에서 면접 내용이 단편적 지식의 나열에 그침으로써 심층 면접의 실제 상황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수도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학생의 대답이 지나치게 유창하게 구성되어 부자연스럽다든지 듣기 상황을 고려하여 교수의 수를 남, 너 두 사람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는 세부 지적 사항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자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출제자는 이 문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5~6] 이번에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술·심층면접 상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교수 : 자, 긴장을 푸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수 학생은 완벽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생 : 글썄요, 저는 완벽한 사회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학생 :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완벽하게 청결하려고 하면 결벽증 같은 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완벽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지금보다 좀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수 : 지금보다 좀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학생 : 제가 생각하기에는 빈부격차가 없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호화로운 집들 맞은 편에 가난하게 사는 빈민촌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연탄도 없어서 추운 방에서 겨울을 보내는 천막촌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수 :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학생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빈부격차를 줄이는 복지정책을 펴야 합니다. 누진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수 :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면 일을 열심히 해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의 근로 동기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국가 생산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학생 :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수 : 네,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생산력

이 떨어지고 지금보다 더 못살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학생 : 아, 네.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생태계와 떨어져 살 수 없듯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수입이 많은 사람도 세금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물음) 교수의 질문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① 문제제기 ⇒ 논거확인 ⇒ 새로운 문제제기 ⇒ 반론제시 ⇒ 문제해결력 파악
- ② 문제제기 ⇒ 논거확인 ⇒ 새로운 문제제기 ⇒ 문제해결력 파악 ⇒ 반론제시
- ③ 문제제기 ⇒ 반론제기 ⇒ 새로운 문제제기 ⇒ 논거확인 ⇒ 문제해결력 파악
- ④ 문제제기 ⇒ 새로운 문제제기 ⇒ 논거확인 ⇒ 문제해결력 파악 ⇒ 반론제시
- ⑤ 문제제기 ⇒ 새로운 문제제기 ⇒ 논거확인 ⇒ 반론제시 ⇒ 문제해결력 파악

6. (물음) 학생의 대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일관성 있게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주장과 다른 관점에 대해 수용적이다.
- ③ 핵심적인 논거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말하고 있다.
- ④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⑤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논점에서 어긋나고 있다.

이 두 문항에 대하여 검토자는 5번 문제의 발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답지의 항목들이 '질문 내용' 이라기보다는 '질문의 성격'에 가까우므로 "다섯 가지 질문의 성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도로 수정하고, 지문에서 6회에 걸쳐 이루어진 교수의 질문을 5회 정도로 조정하여 질문의 수와 답지 항목의 수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다.

6번 문제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학생의 마지막 대사가 자신 없는 말투로 이루어짐으로써 정답지 ①번을 선택하는 데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자신 있는 말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출제자는 듣기 대본에서 교수의 질문을 5개로 축소하고 학생의 마지막 답변을 좀 더 확신 있는 어조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문항에서는 5번 문항의 답지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화용론적 개념을 도입하여 '상세화 요구'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높였다. 아울러 답지 배열에서도 오답지의 매력도가 높은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6번 문항은 오답지 ③, ④에 표현된 의미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정답 시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답지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답지에서 '문제 해결력 파악' 대신 화용적 개념을 적용하여 질문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 방안 요구' 등으로 용어 수정을 하는 등 윤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5~6] 이번에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술·심층 면접 상황 중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물음에 답하세요.

학생 :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교수 : 자, 긴장을 푸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수 학생은 완벽한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생 : 글썄요, 저는 완벽한 사회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학생 :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완벽하게 깨끗해지려고 하면 결벽증 같은 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완벽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지금보다 좀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수 : 지금보다 좀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학생 : 제가 생각하기에는 빈부 격차가 작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호화로운 집들 맞은편에 사는 빈민촌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연탄도 없어서 추운 방에서 겨울을 보내는 천막촌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빈부 격차를 줄이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수 :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학생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펴야 합니다. 누진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수 :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금보다 더 못살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학생 :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면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통합도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살아야 사회 갈등과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모두 잘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합의하게 되면 수입이 많은 사람도 세금 때문에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6] 들려 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교수의 질문 성격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① 문제 제기 → 논거 확인 → 상세화 요구 → 반론 제시 → 해결 방안 요구
- ② 문제 제기 → 논거 확인 → 상세화 요구 → 해결 방안 요구 → 반론 제시
- ③ 문제 제기 → 논거 확인 → 반론 제시 → 상세화 요구 → 해결 방안 요구
- ④ 문제 제기 → 반론 제시 → 논거 확인 → 해결 방안 요구 → 상세화 요구
- ⑤ 문제 제기 → 반론 제시 → 논거 확인 → 상세화 요구 → 해결 방안 요구

**6. (물음) 학생의 대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일관성 있게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자기 주장과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수용적이다.
- ③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외국의 사례를 들어 핵심적 논거를 보완하고 있다.
- ⑤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논점에서 어긋나고 있다.

## ⑤ 쓰기 문항 개발 과정 및 예시

쓰기 영역은 지필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문제를 발견하고 내용을 생성하며 조직하는 능력과, 실제로 글을 쓰고 고쳐 쓰는 능력이 포함된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쓰기 영역은 내용 조직과 관련한 추론적 사고에서 2문항, 개요의 수정과 평가, 고쳐 쓰기 등 비판적 사고에서 2문항, 자료를 활용한 글감의 생성, 내용의 생성과 표현 등 창의적 사고 2문항이 출제되었다.

쓰기 문항은 쓰기의 과정에 대한 간접 평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수험생들이 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최대한 쓰기의 실제에 가까운 상황 설정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문 자료가 중심이 되는 듣기나 읽기 등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 이해 영역의 문항 유형과는 달리 쓰기 영역의 문항은 텍스트를 구성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쓰기 영역의 평가 문항은 쓰기 과정에 대한 메타 분석 능력이 실질적인 평가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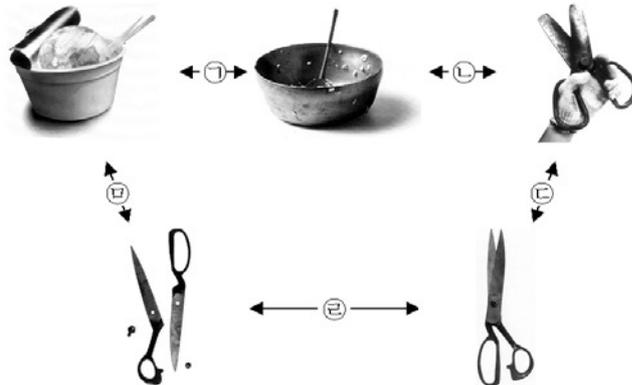
주어진 지문 없이 자료를 가공해야 한다는 점과 쓰기의 사고 과정을 외재화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쓰기 영역은 다른 영역의 문항에 비해서 출제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가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면 쓰기 영역의 문항 제작 과정을 평가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 가.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생성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과 자료로부터 쓸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을 평가기에 적합하도록 자료와 문두와 답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인터넷 화면에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연상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고자 한다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인터넷 화면과,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료로부터 이끌어 낸 내용의 적절성 등을 문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때 ‘연상’ 행위의 특성 때문에 답지가 지나치게 열려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웰빙’ 개념에 자체에 대한 친숙도가 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글 쓰는 동기 설정, 글감 선정, 자료 검색 등의 글 쓰기 단계와 관련하여 게시판 검색과 글쓰기 행위와의 연계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5학년도 6월 모의 평가 문항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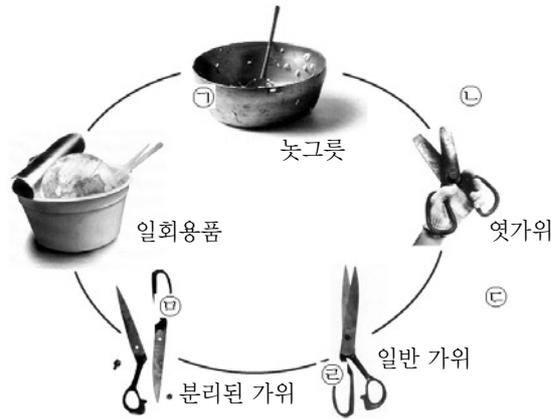
7.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쓰고자 한다. 아래 그림을 두 가지씩 연결하여 구상한 논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후세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고려하여 다소의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 ② ㉡ : 과거는 현재의 뿌리이므로 잊혀져 가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③ ㉢ : 다른 사항은 무시하고 기능적인 편리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 ④ ㉣ : 사회의 구조적 힘에 압도되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 :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새로운 형식의 참신한 문항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분적인 지적 사항으로는 그림에 대한 설명(일회용품, 낫그릇, 옛가위, 일반 가위, 분리된 가위)이 필요하다는 점과 ④번 답지에서 논리적 비약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제시 방식을 수정하고 답지를 일부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제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7.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글을 쓰고자 한다. 그림을 두 가지씩 연결하여 구상한 글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다소의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 ② ㉡ : 과거는 현재의 뿌리이므로 사라져 가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③ ㉢ : 한 집단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다르므로 저마다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④ ㉣ :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⑤ ㉤ :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합리적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나. 자료의 분석과 논지 설정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선정’이 주로 연상과 유추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쓸 내용을 다양하게 생성하는 활동임에 비해,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지 설정’은 자료에 대한 분석 작용을 거쳐 글의 논지를 설정하는 활동이다.

6월 모의 평가 쓰기 분야에서 ‘자료의 분석과 논지 설정’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문제가 확정되기까지 한 차례 교체 과정을 거쳤다. 최초로 제출된 문항은 ‘우리 고장 문화 축제’ 안내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간에 이루어진 토의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었다. 이 문항은 1차 검토 이후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절충 방안을 묻는 문제로 대체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교체와 수정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출자자가 제출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8.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절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설문 조사 결과

- 질문 : 우리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 결과 : ㉠ 응답 비율
  - 찬성(53%), 반대(42%), 무응답(5%)
- ㉡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
  - 찬성하는 이유: 범죄 예방 효과, 신속한 범인 체포 등
  - 반대하는 이유: 사생활 침해, 경제적 부담 등

- ① 우선 우범 지역에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본다.
- ② 범죄 발생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운영한다.
- ③ 지역 주민들이 합의하여 감시 카메라 설치 대수를 결정한다.
- ④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다.
- ⑤ 강력 범죄에만 감시 카메라 녹화 테이프 원본을 증거 자료로 활용한다.

수정 제출한 문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우선 이 문항에서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와 답지에 제시된 절충 방안 즉 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답지의 내용 중에서는 '설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②에서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의 중의성, ⑤가 다른 답지에 비해 지나치게 부각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출제자는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항을 제출하였다.

8.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절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설문 조사 결과

- 질문 : 우리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 결과 : ㉠ 응답 비율
  - 찬성(53%), 반대(42%), 무응답(5%)
- ㉡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
  - 찬성하는 이유 : 범죄 예방 효과, 신속한 범인 체포 등
  - 반대하는 이유 : 사생활 침해, 경제적 부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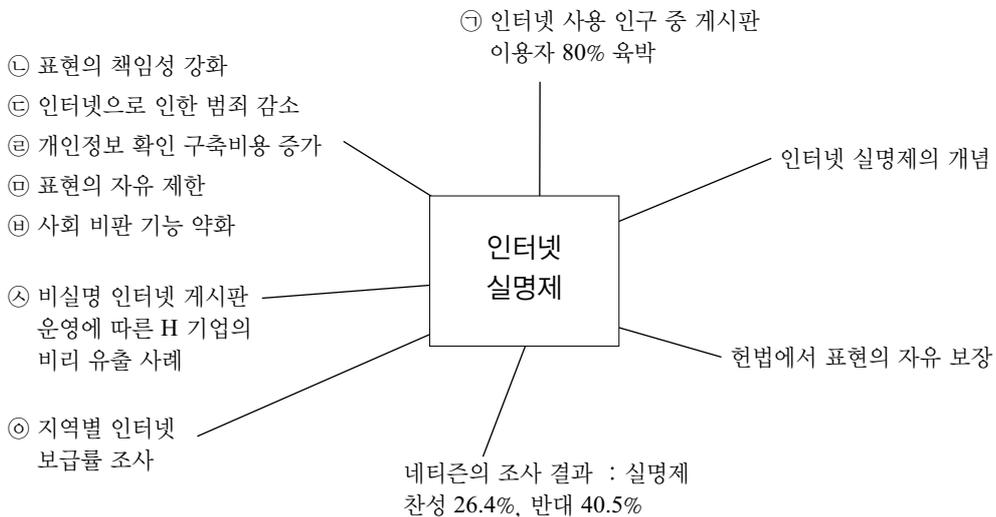
- ① 우선 우범 지역에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본다.
- ② 범죄 발생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운영한다.
- ③ 지역 주민들이 합의하여 감시 카메라 설치 대수를 결정한다.
- ④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다.
- ⑤ 신속한 범인 체포를 위하여 경찰과 협의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

## 다. 개요의 수정과 평가

‘개요의 수정과 평가’는 학생들이 개요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므로, 자료로 제시되는 개요에 ‘부적절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개요와 그 수정 방안은 학생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고, 글 쓰기에 실제 과정에 유사하게 제시되도록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월 모의 평가 쓰기 분야에서 ‘개요의 수정과 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자자가 제시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0. ‘인터넷 실명제, 문제 많다’는 주제로 기사문을 쓰기 위해 내용을 생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했다. 적절한 생각이 아닌 것은?



### <보 기>

- I.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 제기
- II. 인터넷 실명제의 양면성
  1.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2.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 1) 경제적 측면
    - 2) 사회적 측면
- III. 인터넷 실명제 실시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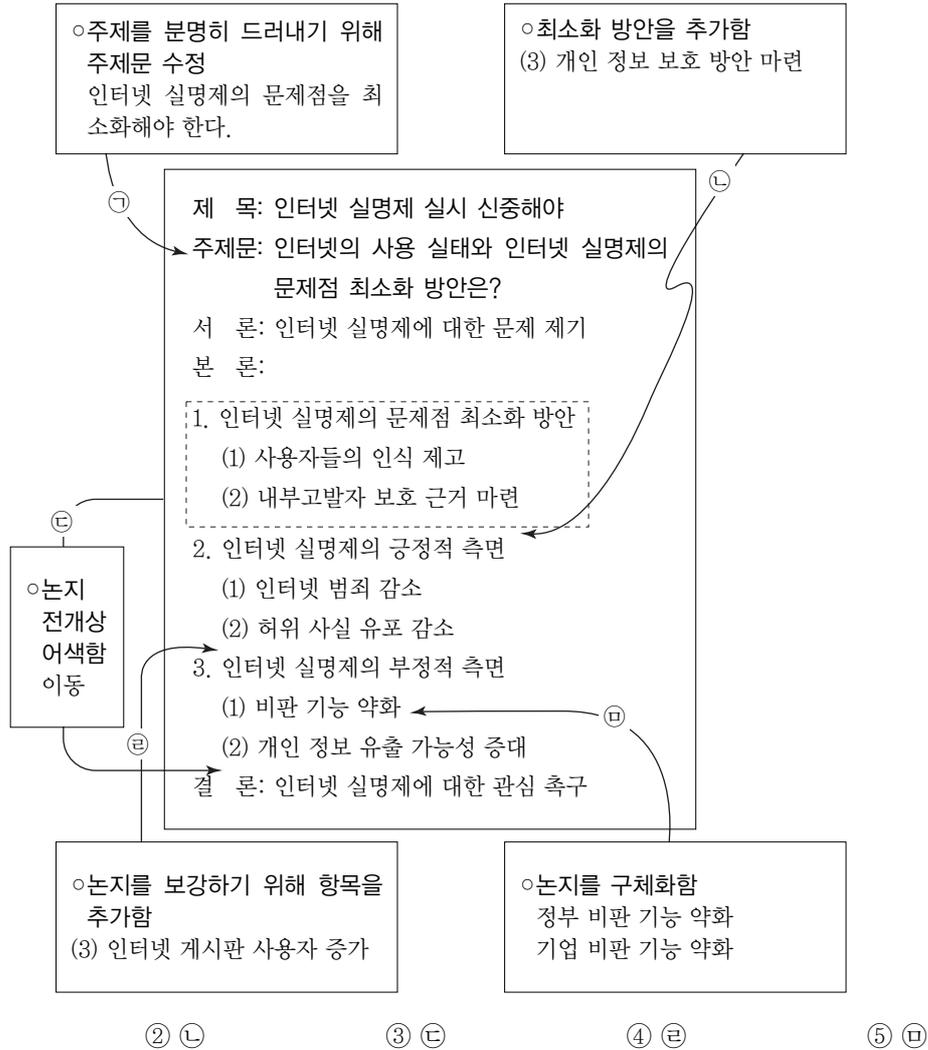
- ① ‘I’에서는 ㉠을 활용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 ② ‘II의 1’에서는 ㉡과 ㉢을 논지로 활용한다.
- ③ ‘II의 2’에서는 ㉣과 ㉤, ㉥을 논지로 활용한다.
- ④ ‘II의 2’에서는 ㉦으로 ㉥의 논지를 보강한다.
- ⑤ ‘III’에서는 ㉧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다.

검토자는 이 문항에서 처리 요구하는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고 자료의 제시 방식이 산만하다는 점, 그리고 ①, ④, ⑤번 답지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출제자는 글의 내용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글의 개요에 제목과 주제문을 포함하고 본문의 짜임을 더 정교화하였다. 그리고 곡선과 화살표를 활용하여, 개요 수정의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의 내용을 개요의 해당 부분과 직접 관련지어

보여줌으로써 자료 제시 방식에 글 쓰기의 실제 수행 과정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요와 답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문항을 제출하였다.

10.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해 보았다. 개요 수정을 위한 생각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라. 내용의 생성과 표현

‘내용의 생성과 표현’은 주로 조건이 부과된 쓰기 과제에 따라 글을 알맞게 썼는지 묻는 문항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글 쓰기의 문제 상황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답지로 제시된 예시 글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고소설 ‘구운몽’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쓴 광고 문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문항을 제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문항은 독후감과 광고 문안 쓰기라는 상황 설정이 다소 생경하고 표현의 조건이 열려 있어 정답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글 쓰기의 문제 상황으로 설정하는 데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6월 모의 평가에서는 실의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쓴 쪽지 글을 장르로 선택하고 주어진 조건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찾도록 문제 상황을 설정하였다.

10. 실의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쓴 쪽지 글이다. <보기>의 조건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보 기〉

1. 희망적인 내용을 담을 것.
2. 적절한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할 것.
3. 직유나 은유의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많이 아프지?  
몇 주 동안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니?  
문득 ‘하면 된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반 친구들도 너에게 안부 전해 달래.
- ② 친구가 떠나서 무척이나 섭섭하겠구나.  
왜 옛말에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라는 말이 있잖아?  
축 처져 있는 모습, 너답지 않아.  
너무 아프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렴. 봄의 새싹들처럼.
- ③ 선생님께 혼나서 많이 속상하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거야.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 라는 말도 있잖아?  
힘 내! 햇빛처럼 환한 너의 웃음을 보고 싶다, 친구야.
- ④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옆친 데 텃친 격이 되었구나.  
힘 내! 우리는 젊잖아? 청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촛불이 아니겠니?  
수업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 ⑤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쉽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사실 나도 떨어졌거든.  
이번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이 문항에 대하여 검토자는 ②번에서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라는 부분이 친구를 떠나 보내고 섭섭해 하는 대화 상대의 처지와 관련될 수도 있다는 점, ③번의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도 있잖아?” 라는 표현의 이면에 숨은 의미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이 속담이 선생님께 혼나서 속이 상한 친구에게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답 지인 ④번의 뒷부분인 ‘힘 내! 이야기하자.’ 부분이 앞부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④와 ⑤에서 속담과 격언을 인용할 때 다른 답지에서처럼 작은 따옴표가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출제자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②번 답지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속담을 넣어 맥락에 맞지 않게 수정하고, ③번에 사용된 속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를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로 바꾸고 문맥을 수정하였다. ⑤번 답지도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고 속담도 ‘공든 탑이 무너지랴?’ 로 바꾸어 좀 더 자연스러운 답지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③번과 ④번 답지의 후반부 문맥을 좀더 자연스럽게 수정하여 최종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0. 실의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쓴 쪽지 글이다. <보기>의 조건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보 기〉

1. 희망적인 내용을 담을 것.
2. 적절한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할 것.
3. 직유나 은유의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많이 아프지?  
 몇 주 동안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니?  
 문득 '하면 된다' 는 말이 떠오른다.  
 반 친구들도 네 안부를 물었어.
- ② 친구가 떠나서 무척이나 섭섭하겠구나.  
 축 처져 있는 모습, 너답지 않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는 말이 있잖아?  
 너무 아프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렴. 봄의 새싹같이.
- ③ 선생님께 혼나서 많이 속상하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거야.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는 말도 있잖아?  
 괜찮지? 수업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 ④ 동생이 아픈데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다며?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엮친 데 덮친 격' 이 되었구나.  
 힘내! 우리는 젊잖아?  
 햇빛처럼 환한 너의 웃음을 다시 보고 싶다, 친구야.
- ⑤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쉽다.  
 너무 절망하지 마. 사실 나도 떨어졌거든.  
 '공든 탑이 무너지랴' 는 말도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마. 고쳐 쓰기

여기서 고쳐 쓰기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대체로 초고를 마무리한 이후에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휘, 문장, 텍스트 수준에서 글의 내용과 형식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다. 고쳐 쓰기는 수험생들이 실제로 써 봄직한 내용과 형식의 글을 제시하고,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글의 내용, 구조, 표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6월 모의 평가에서 고쳐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제시문과 문항 형식을 몇 차례 교체 또는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행복의 조건에 대한 단상을 기록한 짧은 글을 고쳐 쓰기 위하여 제시한 자기 평가용 점검표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그러면 고쳐 쓰기 문항의 완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음은 출자자가 제출한 문항의 초고이다.

12. 학교 홈페이지에 실을 목적으로 어느 친구에 대해 쓴 글을 함께 읽어 보았다. 초고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반에는 유난히 말이 없는 한 친구가 있다. 공부도 잘 하지 못한다. ㉠그 친구 이름은 이은지이다.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는 친구는 없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영수도 관심이 없다. ㉡영수는 키도 크고 공부도 잘 한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휴지를 보면 닥치는 대로 비닐 봉지에 모아 집으로 가져간다. ( ㉢ ) 어느 날 궁금해서 난 친구의 뒤를 밟았다. 저 멀리서 그 친구 집을 바라보니 좁은 마당에는 휴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마침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한 분 나오시길래 그 사연을 여쭙어 보았다. 그랬더니 뜻밖에 대답이 나왔다. 그 친구는 휴지가 어느 정도 모이면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하게 혼자 사는 동네 할머니께 우유를 사 드린다는 것이다. 벌써 3년이 넘었단다. 난 그 순간 누가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좋은 사람은 묵묵히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다.

		이유	해결 방안
①	철수	제목이 없어서 허전하다.	‘휴지 속의 꽃핀 사랑’이라고 붙이는 게 어떨까?
②	영희	㉠ 누군인지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는다.	제일 끝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③	민희	㉡ 불필요한 것 같다.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④	은초	㉢ 휴지 줍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더 넣는 것이 좋겠다.	‘휴지 못 주어서 죽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다’는 문장을 첨가하는 것이 어떨까?
⑤	초롱	㉣ ‘사람’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다.	뒤쪽에 있는 ‘사람’을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이 문항에 대하여 출제위원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문항의 형식은 고쳐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무난하지만 글의 내용과 수준이 수능 언어 영역 문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법적 오류 발견하기가 고쳐 쓰기의 초점이라면 문항으로서 성립할 수 있겠으나, 내용 고쳐 쓰기 활동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문항으로서 함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출제자는 이러한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제시문을 잡지사에 투고하기 위한 기행문의 초고, 행복의 조건 등 다른 주제로 교체하여 문항 제작을 시도하였다. 제시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형식에도 변화를 주어 1차 검토본으로 제출된 문항은 초고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11. <보기>는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이란 제목으로 쓴 초고이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자기 평가표를 만들어 표시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행복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복을 말하라면 이 둘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첫째, 물질적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행복이다. 이에 비해 정신적 행복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그만큼 적극적, 능동적인 행복이다. 둘째, 물질적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신적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다. 비교의 대상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능동적인 행복은 인간의 수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다.  
 셋째, 물질적인 행복은 제한된 행복이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인 행복은 무제한적인 행복이다.

	평가 기준	그렇다	아니다
①	제목과 글의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	
②	핵심 개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	
③	문단은 적절히 구별되어 있는가?		√
④	앞뒤 문장의 연결은 자연스러운가?		√
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적절한가?	√	

위 문항에 대하여 검토자는 ④번에 해당하는 문장 즉, ‘능동적인 행복은 인간의 수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앞 문장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답지로서 너무 두드러진다는 점과 ⑤번에서 지적인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부적절한 문장이 제시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출제자는 ④번이 정답지로서 두드러지기는하지만 나머지 답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인지적인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⑤번 답지의 지적사항은 제시문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목을 제시문에 포함시키는 등 문항의 형식을 좀 더 다듬어서 최종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1.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자기 평가표에 따라 표시하여 보았다. 바르게 표시한 것은?

—〈보 기〉—

**행복한 사람의 특성과 조건**

행복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첫째, 물질적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행복이다. 이에 비해 정신적 행복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그만큼 적극적, 능동적인 행복이다. 둘째, 물질적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신적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다. 비교의 대상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능동적인 행복은 인간의 수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다.

셋째, 물질적인 행복은 제한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신적인 행복은 무제한적인 행복이다. 정신적 가치는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유산이다.

	평가 기준	그렇다	아니다
①	제목과 글의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
②	주요 개념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
③	문단은 적절히 구별되어 있는가?	√	
④	앞뒤 문장의 연결은 자연스러운가?	√	
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적절한가?	√	

180점 평가

## 6 읽기(비문학) 문항 개발 과정 및 예시

수능 언어 영역에서 읽기(비문학)은 문학 작품 외에 인문·사회, 과학·기술, 생활·언어,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제재로 하여 읽기행위에 수반되는 복합적이고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출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지문에서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어휘·어법 등의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문항을 출제하게 된다.

읽기(비문학)의 출제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부분은 지문의 선정 또는 제작의 과정이고 다른 한 부분은 문두와 답지, 추가 자료의 제작 과정이다. 지문의 선정과 제작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언어 영역 평가 목표 이원분류표의 내용 영역의 분류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문두와 답지, 추가 자료의 제작 과정에서는 언어 영역 평가 목표 이원분류표의 행동 영역 분류와 그 세부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문항을 제작하게 된다.

200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읽기(비문학)에서는 읽기(비문학)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글을 지문으로 선정하였다. 김부식의 '진삼국사기표'와 이규보의 '동명왕편 서(序)'를 복합 지문으로 구성한 인문 지문,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몸'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을 다룬 사회 지문, '생물다양성'과 환경 문제를 결부한 과학 지문, 우리의 전통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다룬 기술 지문, 영화 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보여 주는 예술 지문, 노래방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문화를 다룬 생활 지문이 그 예이다.

6월 모의평가 읽기(비문학)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의 행동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실적 사고 7문항(28%), 추론적 사고 6문항(24%), 비판적 사고 5문항(20%), 창의적 사고 4문항(16%), 어휘·어법 3문항(12%)으로, 행동 영역별 비율은 사실적 사고>추론적 사고>비판적 사고>창의적 사고>어휘·어법의 순이었다.

그러면 이 절에서는 읽기(비문학) 영역의 출제 과정을 이원분류표 상의 행동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가. 사실적 사고

6월 모의 평가 읽기(비문학)에서 사실적 사고와 관련하여 출제된 7문항의 세부 평가 목표를 제재별로 살펴보면 '사회' 제재는 개괄적인 정보의 파악과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예술' 제재는 중심 내용의 파악, '인문' 제재는 내용의 개괄적 이해, '기술' 제재는 세부 정보 및 핵심 정보의 파악, 그리고 '과학' 제재는 개괄적인 정보의 파악 등이었다. 대체로 정보 및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 제재를 중심으로 하여 사실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출자자가 최초로 제출한 지문은 동양에 대한 유럽인의 시각을 반영한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지문은 2004학년도 본 수능과 2차 모의고사 등에 출제된 지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어 사회 제재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출제위원단에서는 '신체'의 사회적 의미를 다룬 지문을 구성해 볼 것을 주문하였다. 출자자가 지문을 교체하여 제출한 문항 중 사실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살펴보자.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평균 범위에 속하는 체중을 가진 여성들도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빈부, 노소, 체형을 떠나서 하나같이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욕망은 다이어트 열풍으로 이어졌다. 몸이 우리의 다양한 욕구나 자기의 표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이어트 열풍은 우리 사회를 읽어내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소비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이 풍요해지자 인간은 다양한 소비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믿지만, 이러한 자기 표현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이미지의 형성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각적인 쇼 프로그램, 중산층의 소비 및 문화를 반영하는 드라마, 자극적인 광고 등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자기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여러 영상매체에서 본 이미지를 모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며, 이런 이미지의 모방이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자기 이미지의 형성에 중심이 되는 매체가 바로 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은 몸만들기와 몸치장을 통해 소비 사회에 어울리는 상품으로 자신을 만들어 간다. 그리하여 우리는 소비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이다.

고도의 소비사회에 이르기 전에도 사람들은 영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매체에서 얻은 몸의 이미지를 닮고 싶어했다. 한 사회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는 바삭마른 몸매의 소녀 같은 여성이, 19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와 같이 풍만한 몸매의 여배우가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1930-40년대에는 일하는 여성이 필요했기에 민첩해 보이는 마른 여성이 매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경제 호황이 시작된 1950년대에는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풍조가 강해지자 사람들은 풍만한 곡선미를 지닌 여배우들의 이미지를 선호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모에 대한 그릇된 인식 등과 맞물려 다시 날씬한 여성의 이미지가 선호되고 있다. 최근의 비정상적인 다이어트 열풍도 대중매체를 통해 확대되고 재생산된 측면이 많다.

오늘날 몸 이미지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다이어트이다. 다이어트는 원래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몸을 관리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18세기 서구사회에서 다이어트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음식의 양과 유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세에는 종교적 생활 양식에서 영혼을 통제하려는 훈육(訓育)의 한 방법이었다. 이와 반면, 오늘날의 다이어트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서 외양을 갖추어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다이어트는 일정 부분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몸에 대한 관심이 자본주의의 상품화 논리에 다중적으로 지배되면서 오히려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상품으로서의 몸 이미지와 외모 지향적 가치관은, 매력적인 몸에 대한 강박관념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날씬한 몸매 만들기의 대열에 합류시킨다. 이처럼 대중매체와 타인의 시선에 의해 획일화된 몸 이미지의 형성은 우리에게 더이상 몸은 없고 몸 이미지만 남게 하였다.

20. 위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 ① 오늘날 사람들은 단지 건강한 몸이 아니라 남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외모, 이왕이면 날씬

한 몸을 갖고 싶어한다.

- ②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태도, 새로운 문화들이 여과 없이 도입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③ 최근 우리사회의 다이어트 열풍은 날씬 외모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생산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적 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다.
- ④ 사람들이 날씬한 외모를 갖고 싶어하고 몸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본래 부터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고 다이어트는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려는 한 방식이다.
- ⑤ 대중매체의 발달과 자본주의 소비문화는 사람들의 자기표현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지문을 통하여 최근 ‘몸짱’ 과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다이어트의 사회적 의미를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지문은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수험생들이 사회 현상을 분석적으로 서술한 지문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고,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사실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자는 지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 답지를 구성하였다.

이 지문과 문두 및 답지에 대하여 검토자는 먼저 화제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지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체적으로 다이어트 현상과 몸 이미지에 대한 진술이 다소 산만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논리적인 인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내용 전개를 위한 지문 재구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답지의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원리가 발견되지 않고 표현이 장황하여 정답지와 오답지를 변별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출제자는 후속 작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본을 제출하였다.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오늘날 여성들은 체중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빈부, 노소를 떠나서 하나같이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욕망은 다이어트 열풍으로 이어진다. 몸이 우리의 다양한 욕구나 자기 표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이어트 열풍은 우리 사회를 읽어 내는 하나의 ㉡ 거울이 될 수 있다.

몸에 대한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사회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930년대에는 바싹 마른 몸매의 여성이, 19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와 같이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1930년대에는 일하는 여성이 필요했기에 민첩해 보이는 마른 여성이 매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여성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풍조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풍만한 곡선미를 지닌 여배우의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소비 사회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의 중심이 된다. 산업의 발달로 물질이 풍요해지자 인간은 다양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믿게 되었다. 오늘날 소비는 대중 매체에 의해 조정되고 조절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인간은 ㉢ 영상 매체에서 본 이미지를 모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를 통한 자기 표현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주체적이고 ㉣ 능동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행위는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날씬한 여성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모든 유형의 다이어트가 오늘날과 같은 이유로 행해진 것은 아니다. 중세에 다이어트는 종교적 생활 양식에서 영

혼을 통제하려는 훈육(訓育)의 한 방법이었고, 18세기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 음식의 양과 유형을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오늘날의 다이어트는 대부분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 외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이러한 다이어트 열풍을 부추겼으며, 대중 매체를 통해 점점 더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몸에 대한 관심은 자본주의의 상품화 논리에 지배되면서 오히려 자기 몸을 소외시키고 있다. 대중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상품으로서의 몸 이미지와 외모 지향적 가치관은 ㉣ 매력적인 몸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다이어트를 통한 날씬한 몸매 만들기 대열에 합류시킨다. 이처럼 대중 매체 속에서 만들어진 획일화된 몸 이미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몸은 없고 몸 이미지만 남게 한다.

##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1950년대 미국에서는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인기를 끌었다.
- ② 사람들이 선호하는 몸의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 ③ 경제 상황이 사람들의 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④ 소비 사회에서 사람들은 영상 매체에서 얻은 몸의 이미지를 모방한다.
- ⑤ 18세기의 여성들은 날씬한 몸매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하였다.

최종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드러진 변화는 답지의 내용이 지문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읽기에서 개괄적 정보의 확인을 통하여 사실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지문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를 중심으로 답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문에 제시된 글쓴이의 의견이나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묻는 경우에는 답지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위 글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글에 제시된 정보 중에서 답지 내용을 구성하고 각각의 답지가 지문에 제시된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종종 글쓴이의 의견이나 글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는 사고 작용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답지 배열 순서가 글에 제시된 정보의 순서가 아니라 답지의 길이 순으로 배열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답지의 길이 차이로 인한 정답 선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보를 단순 대조하는 대신 지문의 내용을 개괄적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 나. 추론적 사고

6월 모의 평가 읽기(비문학)에서 추론적 사고와 관련하여 출제된 6문항의 세부 평가 목표를 제재별로 살펴보면 ‘사회’ 제재는 개념의 구체적 적용, ‘예술’ 제재는 개념의 구체적 적용과 문맥적 의미의 파악, ‘기술’ 제재는 외적 정보를 활용한 추리, ‘생활’ 제재는 논지의 파악과 적용, 그리고 ‘과학’ 제재는 핵심 정보의 이해와 적용 등이었다. 대체로 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개념을 적용하거나 추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예술’ 제재를 중심으로 하여 추론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출자자가 최초로 제출한 지문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를 소개하는 글이었다. 이 지문을 서너 차례 다듬고 문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에 출자자가 제시한 문항 중에서 추론적 사

고 능력을 평가하는 두 개의 문항을 살펴보자.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영화 한 편에 천만 명의 관객이 몰릴 정도로 영화는 대표적인 우리 시대 문화·예술의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발터 벤야민(W. Benjamin)이 영화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에 의하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작품이 지니는 ㉠ 아우라 Aura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우라는 근대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비인간화되고 사물화된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 아름다운 향기 내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데, 그것과 영혼의 교감을 통해 몰입할 때, 그 때 어느 한 순간 일회적으로 나타난다. 예술 작품은 멀리, 심연에 있는 아우라를 불러내는 것이고, 수용자는 그런 예술 작품과의 ㉢ 정신적 교감을 통해 아우라를 경험한다. 그런데 사진이나 카메라 같은 기계적, 기술적 장치들이 예술의 영역을 침투하면서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파괴되는데, 벤야민은 그 대표적인 예술로 영화를 들고 있다.

벤야민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관객의 자리에 카메라가 대신 들어선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연극의 경우 배우와 관객은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연출해 보이고 관중의 호흡에 맞추어 연기를 할 수 있다. 관객은 연극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를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배우의 아우라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배우와 관객 사이에 카메라라는 기계가 개입된다.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 카메라라는 기계가 갖는 비인간적 요소로 인해 시선의 교감을 나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관객은 스크린에 비친 영상만을 접하기 때문에 배우와 교감을 나눌 수 없고, 다만 카메라와 일치감을 느낄 때 배우와의 일치감을 느낄 수 있다. 관객은 배우와 교감하지 못하고, 카메라처럼 배우를 시각적으로 시험하고 비평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로 인해 배우는 모든 교감의 관계가 차단된 유배지 같은 곳에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 결과 배우를 감싸고 있는 아우라는 사라지고 동시에 그가 그려내는 인물의 분위기 또한 사라진다.

다음,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고 편집된 한 편의 완성된 영화에 담긴 동작의 순간들은 카메라 자체의 동작의 순간이며, 영화 배우는 그 순간의 적당한 장소에 선별적으로 배치된 소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카메라에 의해 조립된 영상들에 아우라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연기자의 연기를 일련의 조립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쪼개어 놓는 카메라의 특성으로 인해, 영화 배우의 연기는 하나의 통일된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적 작업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은 제작소 안에 있는 받침대에서 뛰어내리는 형태로 촬영되지만, 뛰어내리고 난 후의 도주 장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몇 주일 지난 후에 옥외에서 촬영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보다 훨씬 더 역설적인 경우를 쉽게 구성해볼 수도 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배우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연출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나 이 때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연기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 감동은 임시방편을 취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영화는 상실된 아우라를 만회하 만회하기 위해 스튜디오 밖에서 영화 자본에 의지하여 인위적 스타를 만들어 상업화로 나아간다. 벤야민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들어, 전통적인 예술이 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 아름다운 가상(假象)의 왕국으로부터 예술이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영화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영화초창기에 대두된 벤야민의 이러한 비판이 오늘날 문화의 총아로 각광받는 영화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6. 문맥상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배우가 다시 스튜디오에 나오는 기회를 잡아 아무런 예고 없이 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총을 쏘으로써 그 배우의 놀라는 모습을 찍어 필름에 끼워 넣는다.
- ② 그는 배우로 하여금 과거에 놀랐던 일을 되살리도록 해서 그 때의 표정을 지어보라고 한 후 그 모습을 찍어 필름에 끼워 넣는다.
- ③ 그는 배우가 뱀을 몹시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문을 두드리는 동시에 장난감 뱀을 배우 앞에 갑자기 던져 그 배우의 놀라는 모습을 찍는다.
- ④ 그는 배우가 놀라 장면에서 실제로 놀라는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실제로 배우가 놀라면 그 모습을 찍어 필름에 끼워 넣는다.
- ⑤ 그는 배우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한 후를 미행하다가 길거리미행

27. ㉠~㉥ 중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위 지문에 대해서 출제위원단에서는 글쓴이의 견해와 벤야민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논지의 초점을 벤야민의 견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지문의 길이를 좀 더 줄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26번 문항은 ㉠ 부분이 지문에서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중요도가 높은 부분으로 밀출 위치를 바꾸어 문항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27번 문항은 답지 변별이 너무 쉬우므로 ㉠~㉥의 위치를 수정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검토자의 검토를 받아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출제자는 ㉠의 위치를 바꾸어 26번 문항을 전면 수정하고, 26번 문항을 그림 자료가 들어간 매체 통합형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27번 문항에서 ㉠~㉥의 위치도 바꾸었다. 지문의 변화와 매체 통합형으로 제시되었던 26번 문항에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영화 한 편에 천만 명의 관객이 몰릴 정도로 영화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영화 초창기인 1930년대에 발터 벤야민(W. Benjamin)이 영화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에 의하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지니는 ㉠ 아우라(Aura)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우라는 비인간화되고 사물화된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 아름다운 향기 내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데, 그것과 영혼의 교감을 통해 몰입할 때, 그 때 어느 한 순간 일회적으로 나타난다. 예술작품은 심연에 있는 아우라를 불러 내는 것이고, 수용자는 그런 예술작품과의 ㉢ 정신적 교감을 통해 아우라를 경험한다. 그런데 사진이나 카메라 같은 기계적, 기술적 장치들이 예술의 영역을 침투하면서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파괴되는데, 벤야민은 그 대표적인 예로 영화를 들고 있다.

벤야민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관객의 자리에 카메라가 대신 들어선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연극의 경우 배우와 관객은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연출해 보이고 관중의 호흡에 맞추어 연기를 할 수 있다. 관객은 연극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를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배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배우와 관객 사이에 카메라가 개입된다. <하략>

언어 영역

26. ㉠의 관점에서 아래 그림을 직접 보고 감상한 내용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고향에 문득 가고 싶어. 내 고향도 예전에는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 ② 고개 숙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뒤에 있는 텅 빈 들판, 그 들판과 맞닿은 지평선이 절묘하고 안정적이군.
- ③ 하루 일을 끝낸 뒤 감사를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에는 열심히 일한 뒤에 느낄 수 있는 충만감이 있어.
- ④ 차를 마시면서 이 그림을 보니 온갖 생각이 들어. 특히 저녁 노을은 고즈넉해.
- ⑤ 그림의 모델이 된 실제 장소가 그림의 풍경과 많이 다르다는 데 직접 가서 한 번 봐야겠어.

2차 검토본의 26번 문항에 대하여 검토자는 사진에서 ‘아우라’를 찾는다는 것은 아우라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에 정답에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림 자료를 인쇄함으로써 나타나는 ‘아우라의 파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이 나머지 문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단을 재구성하여 논지의 흐름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자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영화 한 편에 천만 명의 관객이 몰릴 정도로 영화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영화 초창기인 1930년대에 발터 벤야민(W. Benjamin)이 영화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지니는 ㉠ 아우라(Aura)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우라는 비인간화되고 사물화된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 아름다운 향기 내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데, 대상과 ㉢ 영혼의 교감을 통해 몰입할 때, 그때 어느 한 순간 일회적으로 나타난다. 예술 작품은 심연에 있는 아우라를 불러내는 것이고, 수용자는 그런 예술 작품과의 교감을 통해 아우라를 경험한다. 그런데 사진이나 카메라 등과 같은 기계적, 기술적 장치들이 예술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파괴되는데, 벤야민은 그 대표적인 예로 영화를 든다.

벤야민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관객의 자리에 카메라가 대신 들어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극의 경우 배우와 관객은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연출해 보이고 관중의 호흡에 맞추어 연기를 할 수 있다. 관객은 연극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를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배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배우와 관객 사이에 카메라가 개입된다.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지만, 카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臣) 부식은 아뢰입니다. 옛날 열국들도 각각 사관을 두어 일을 적었기에, 맹자가 “진의 승, 초의 도올, 노의 춘추는 한 가지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해동 삼국은 역사가 오래되어 그 사실이 응당 책에 밝혀져야 되겠기에, 늙은 신에게 명하여 이를 편집토록 하셨으나, 스스로 돌아봐도 부족할 따름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 중략 …) “오늘날 사대부들이 오경·제자의 글 및 진한·역대의 사서에 대하여는 간혹 환하게 알아 상세히 말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개탄할 노릇이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열어 솔밭처럼 맞서면서도 능히 예의로써 중국과 통하였기에, 『한서』와 『당서』에 모두 그 열전이 있게는 되었으나, 국내는 상세히 하고 외국은 간략히 하는 바람에 그 일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고기(古記)란 것도 문자는 거칠고 불합리하며 사적은 빠지고 없어져서, 임금의 착함과 악함, 신하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나라의 평안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드러내어 이로써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뛰어난 인재를 얻어 훌륭한 사서를 이름으로써, 이를 만세토록 남기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과 같은 자는 본래 뛰어난 인재도 아니고 깊은 지식도 없을 뿐더러,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 날로 정신이 혼몽해져서, 글을 부지런히 읽어도 책을 덮으면 바로 잊어버리고 붓을 잡아도 힘이 없어 종이를 대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의 학술은 이렇게 짧고 얕은데 옛 말과 지난 일은 저렇게 깊고 아득합니다. 이 때문에 온 정력을 쏟아 겨우 책을 엮었으나, 끝내 보잘 것이 없으니 그저 제 자신 부끄러울 뿐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제멋대로 간략히 한 솜씨를 양해하시고 되는 대로 만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비록 명산에 간직할 거리는 못 될지라도, 장독 덮개로 쓰이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구구히 망녕된 뜻은 밝은 해가 굵어 비출 것입니다.

- 김부식, 진삼국사기표 -

(나)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말한다. 어리석은 남녀도 흔히들 말한다. 내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우리 스승 공자께서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였다. 나중에 『위서』와 『통전』을 보니 역시 그 일이 자세하지 못하니, 국내는 자세히 하고 외국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번에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보니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되풀이 읽어 점점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는 사실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랴. 김부식 공이 국사를 중찬하면서 그 일을 자못 생략하였으니,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므로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당현종본기와 양귀비전에는 방사(方士)\*\*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 백낙천이 그 일이 인멸될까 두려워 노래로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데도 읊어서 후세에 보였다. 하물며 동명왕의 일은 신이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이에 시로써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 이규보, 동명왕편서 -

\* 괴력난신(怪力亂神) :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나 현상.

\*\* 방사(方士) : 신선술을 익히는 사람.

30. (가), (나)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가)는 왕을, (나)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
- ② (가)는 겸양의 태도를, (나)는 호방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 (나)는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옛일[典故]을 끌어들이어 논지를 보강하고 있다.
- ⑤ (가), (나)는 대화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하여 검토자는 답지 배열에 특정한 순서가 없기 때문에 길이 순으로 배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문두 진술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답지의 내용이 (가)와 (나)의 ‘특징’이 아니라 일반적인 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자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

출제자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이 문항의 문두 진술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바꾸고 답지 배열 순서를 길이 순으로 재구성하여 최종 문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는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 (나)는 옛일을 끌어들이어 논지를 보강하고 있다.
- ③ (가)는 왕을, (나)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대화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가)는 공순(恭順)한 태도를, (나)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라. 창의적 사고

6월 모의 평가 읽기(비문학)에서 창의적 사고와 관련하여 출제된 4문항의 세부 평가 목표를 제재별로 살펴보면 ‘사회’ 제재는 관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인문’ 제재는 내용의 추리와 적용, ‘기술’ 제재는 새로운 내용의 생성, ‘과학’ 제재는 외적 정보를 활용한 내용의 창의적 수용 등이었다. 창의적 사고 범주에서는 내용의 추리, 적용, 생성, 수용 등에서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과학’ 제재를 중심으로 하여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출제자는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생물의 보존이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어 시사성도 있고 EBS 교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생물 다양성’ 문제를 다른 지문을 선정·제작하여 지문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과학 제재 문항 중에서 ‘외적 정보를 활용한 내용의 창의적 생성’ 능력을 세부 평가 요소로 하는 59번 문항의 출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출제자가 최초로 제출한 지문과 문항은 다음과 같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과학자들은 지구상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아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주요 원인이 인류의 남용으로 인한 자연 자원의 과소비와 이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이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자연의 파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인구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인류의 생존 환경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이 사실은 생물다양성의 문제가 우리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 단지 풍요로운 자연 환경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과 쾌적한 생활에 대한 생리적 욕구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준말로써 원래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의 많고 적음의 정도를 뜻하는 말이지만 지금은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수와 종류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숲이 우거져 각종 동·식물이 생존하기에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이란 말은 ①생태계의 다양성, ②종 다양성, ③유전자의 다양성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수준별 다양성과 그 이외의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을 총체적이고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생물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성은 실로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상에 나비류가 약 17,500종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암·수를 구분하면 그 다양성은 두 배로 늘어나고, 이들 각각이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네 가지 시기와 형태를 나타내므로 그 다양성은 다시 네 배로 늘어난다. 게다가 유전자, 개체군, 종 수준으로 보면 몇 배 이상으로 다시 증가한다. 유전자와 개체군 수준에서는 한 종마다 보통 두 가지 이상의 타입이 있기 때문이다-세가지의 수준들에 대한 부가설명을 대응이 되도록 쓸 계획임)

생물다양성이 안정적으로 보존된다면 그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일 예로 모르핀, 코카인등 119가지의 약품들이 총 90여종의 식물 종들에서 추출되었으며, 주목나무 껍질에서 항암물질을 추출하여 이를 대량 생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생리활성물질은 식물뿐 아니라 동물에서도 추출된다. 아시아산 부전나비의 날개나 대만산 사슴벌레의 다리로부터 항암제로서 매우 유력한 물질이 분리되었고, 뱀, 개구리, 두꺼비 등으로부터 신경계에 작용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분리되기도 하였으며, 딱정벌레, 노래기, 바퀴, 달팽이, 선충류, 해면동물 등에서 항생물질들이 추출되기도 하였다. 미생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DNA의 원하는 특정 부위를 불과 몇 시간만에 수백만 가닥으로 증폭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20세기 후반 생명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했던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필수적인 DNA 중합 효소도 온천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Thermus aquaticus*로부터 추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의약학적이거나 연구·학술적인 인간 중심적 가치 이외에도 생물다양성의 보존은 자연계의 물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대기, 수질, 토양의 보존에 기여하는 등 생태학적 봉사 기능이라는 역할도 수행한다. 일례로서 대기 보존 측면을 보면, 열대우림은 CO<sub>2</sub>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데 대단히 큰 몫을 하므로, CO<sub>2</sub>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억제에 기여한다. 또한 공중질소를 고정시키는 뿌리혹박테리아를 갖는 리조비움 *Rhizobium*속의 식물이 사라진다면 지구 전체의 질소 균형이 깨져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생물 종들이 사라지면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사라진다는 데에 있다. 생물 종들이 나타내는 형태적, 생리적, 발생학적, 유전학적 특성들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패턴들은 약 35억 년 동안의 역

사를 통하여 얻어진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생물 진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생물 진화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의 손실과 직결되어 생명의 본질적 탐구와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존은 우리 인류에게 생태 환경이 주는 무한한 혜택들을 지속시키게 하고, 자연 생태의 파괴와 불균형으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재난들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기 위함은 물론 인류의 기원을 포함한 생물진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생물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 심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인류의 당면 과제이다.

59. 생물다양성이 과연 어느 정도가 유지되어야 생태계의 기능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다음은 그 중 한 가설을 소개한 것이다. 아래의 가설을 읽고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이 가설은 생태계를 마치 금속조각판들을 못으로 이어 만든 하나의 비행기에 비유한다. 만약 못들이 하나하나씩 빠져 나가면 비행기 동체는 점점 약해지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예를 들면 동체를 잇는 마지막 못이 빠지면) 비행기는 폭삭 무너진다. 이 때의 동체를 잇는 마지막 못은 비행기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태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생물 종을 이른바 <주춧돌 종 keystone species>이라고 한다. 생태계의 운명에 관한 이러한 이론을 <대갈못 가설 rivet hypothesis>라고 한다(Ehrlich and Ehrlich, 1981).

- ① 생태계에는 다른 종에 비해 보호 가치가 더 큰 주춧돌 종들이 있으므로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선별적으로 보존에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들 중 어떠한 종이 주춧돌 종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생물 종들을 잠재적인 주춧돌 종으로 생각하고 보존해야만 한다.
- ③ 비행기에서는 어느 못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수가 천문학적이고 그 관계성이 비행기의 못에 비해 훨씬 복잡해 주춧돌 종의 개념은 큰 의미가 없다.
- ④ 생태계에는 주춧돌 종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일정한 정도의 생물다양성 감소를 자연이 감내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들 중 주춧돌 종을 찾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제출한 지문에 대하여 출제위원단에서는 분량이 2000자를 넘고, 첫 문단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논지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며, 사실 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문을 재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문항에 대해서는 일단 문두, 추가 자료, 답지 등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좀 더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출제자는 지문의 길이를 1500자 정도로 축소하고, 답지의 길이를 줄여 수정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원래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種)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표현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각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과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사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생태적 봉사 기능을 들 수 있다. 생물은 생태계의 엔지니어라 불릴 정도로 환경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숲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나무들은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 올려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숲이 사라지면 수분 배분 능력이 떨어져 우기에는 홍수가 나고 건기에는 토양이 완전히 말라 버린다. 이로 인해 생물 서식지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마침내 상당수의 종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물, 흙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태계의 환경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가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품 개발을 꼽을 수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 중에서 인류는 약 20,000여 종의 식물을 약재로 사용해 왔다. 그 가운데 특정 약효 성분을 추출하여 상용화한 것이 이제 겨우 100여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그리고 부전나비의 날개와 사슴벌레의 다리 등에서 항암 물질을 추출한 경우나 야생의 미생물에서 페니실린, 마이신 등 약 3,000여 가지의 항생제를 추출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과 미생물 역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의약품 개발 외에도 다양한 생물이 화장품과 같은 상품 개발에 이용되고 있으며, 생태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한다.

생물다양성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윈(Darwin)은 현존하는 여러 동물들의 상이한 눈을 비교하여,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의 눈이 진화해 온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눈은 해파리에서 나타나는 원시적 빛 감지 세포로부터, 불가사리처럼 빛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오목한 원시 형태의 눈을 거친 다음, 빛에 대한 수용력과 민감도를 높인 초기 수정체 형태의 눈을 지나, 선명한 상을 제공하는 현재의 눈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생물종은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물 진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형태적 특성 외에도 각각의 생물종이 지닌 독특한 생리적,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생물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오늘날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과학의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생물다양성에 기초하여 무한한 생태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과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자연 파괴로 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기관을 건립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59. 위 글과 <보기>를 읽고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생태계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대갈못 가설’을 주장한다. 이 가설에서는 생태계를 마치 금속 조각판을 못으로 이어 만든 하나의 비행기에 비유한다. 만약 못이 하나씩 빠져 나가면 비행기 동체는 점점 약해지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비행기는 폭삭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못은 비행기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태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이른바 ‘주춧돌 종’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네트워크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 ① 효율성을 감안할 때 ‘주춧돌 종’을 먼저 선별하여 보존해야 되겠어.
- ② 비행기의 못이 빠진다는 것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인 생물종의 멸종을 비유한 거야.
- ③ 생태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
- ④ 생태계에서 멸종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비행기에서 못이 빠질 때 어떤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것은 아닐 거야.
- ⑤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를 명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면 ‘대갈못 가설’의 ‘주춧돌 종’을 찾을 수 있을거야.

2차 검토본에 대해서는 정답인 ①번이 지나치게 두드러진다는 점, 그리고 ⑤가 가설적 진술이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출제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답지의 진술을 바꾸고 <보기>의 마지막 문장을 운문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본을 제출하였다.

59. 위 글과 <보기>를 읽고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생태계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대갈못 가설’을 주장한다. 이 가설에서는 생태계를 마치 금속 조각판을 못으로 이어 만든 하나의 비행기에 비유한다. 만약 못이 하나씩 빠져 나가면 비행기 동체는 점점 약해지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비행기는 폭삭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못은 비행기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태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이른바 ‘주춧돌 종’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네트워크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 ① 비행기 동체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야.
- ② 생태계의 네트워크를 명확히 파악하면 ‘주춧돌 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 ③ 비행기의 못 하나가 빠진다는 것은 생물종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비유하는 거야.
- ④ ‘주춧돌 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되겠어.
- ⑤ 생태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

마. 어휘 · 어법

6월 모의 평가 읽기(비문학)에서 어휘 · 어법과 관련하여 출제된 3문항의 세부 평가 목표를 제

재별로 살펴보면 ‘사회’ 제재는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인문’ 제재는 내용의 격조사의 의미 기능 파악하기, ‘생활’ 제재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 등이었다. 어휘·어법 범주에서는 낱말의 사전적·문맥적 의미와 문법 요소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활’ 제재를 중심으로 하여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읽기 지문에서 세트 문항으로 제시되는 ‘어휘’ 문항은 대개 읽기 지문이 확정된 이후 출제에 들어간다. 6월 모의평가 사회 제재에서 ‘어휘’ 문항은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단순한 문항이지만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것은 독해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근래에 한글 전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시의성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채점 결과 이 문항의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독해 문항으로서 어휘 문항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최종 본만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래방이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지금 새삼스럽게 청소년의 노래방 문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 진부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래방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노래방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노래방에서 ‘방’은 두세 평 남짓한 ㉡ 밀폐된 공간이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 청소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이 밀폐된 방을 찾아가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밀폐된 ‘방’을 나와 탁 트인 사회의 ‘광장’으로 나오면 청소년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 ‘광장’에는 기성세대의 문화만이 존재할 뿐 청소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불순하고 병든 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각종 금기가 청소년을 ㉢ 억압한다.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광장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노래방으로 향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 역시 청소년들만의 온전한 문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란 매우 어렵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노래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에, 언뜻 보면 기성세대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상업주의에 물든 기성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도 상업 논리에 지배된다. 대중 음악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중파 방송에서 유행하는 십대 취향의 노래에서 잘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상업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그 문화에 ㉣ 침윤되어 가고 있다. 실험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청소년들이 상업화된 노래를 부르며 창의성을 상실해 가는 자리가 바로 노래방인 것이다.

자신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어 노래방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상업적 문화에 물들어 가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화가 갖는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들이 어둡고 밀폐된 ‘방’에서 밝고 환한 ‘광장’으로 나와 자유롭게 그들만의 문화를 ㉤ 향유하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자기 계발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 또한 보여 준다. 청소년은 기성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빛깔에 물드는 스펀지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기성세대에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존재도 아니다. 청소년의 창의성이 한껏 발휘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

간이 마련된다면, 청소년 문화는 활성화되어 건강하게 꽃필 것이다. 이때 청소년은 기성세대  
 대의 보호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문화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며, 청  
 소년 문화는 우리 문화에 새로운 기운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2. ㉠~㉥의 사전적인 의미가 잘못된 것은?

- ① ㉠ 진부(陳腐)하다 :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
- ② ㉡ 밀폐(密閉)되다 : 셀 틈이 없이 막히거나 닫혀 있다.
- ③ ㉢ 억압(抑壓)하다 :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다.
- ④ ㉣ 침윤(浸潤)되다 : 병 따위가 들어 시들다.
- ⑤ ㉤ 향유(享有)하다 : 누리어 가지다.

## 7 읽기(문학) 문항 개발 과정 및 예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고전시가 복  
 합, 수필의 네 지문으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를 서정 양식과 서사 양식의 두 범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서정 양식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는 서정 양식의 경우,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함께 제시하는 복합형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에서도 이미 시도한 바 있는데, 서정 양식의 경우 길이가 짧아 제재가 독립적이어서 여러 작  
 품을 결합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정 양식은 독립 지문으로 구성할 경우, 보통 2~3작품이 한 세트를 이루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함께 묶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시 2편과 고전시가 1편, 현대시 2편과 고전시가 2편 정도를 묶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고전시가를 해독하는 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  
 생들의 읽기 속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너무 긴 시는 제재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  
 야 할 사항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여러 작품으로 한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세  
 트 지문을 구성하는 데에는 일종의 원칙이 작용한다. 즉 그 작품들이 한 지문으로 묶이게 된 뚜  
 렷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의 주제라든지, 내용상, 형식상의 특성이라든지, 대상  
 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하는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언  
 어 영역 기출 문항에서 자연을 소재로 한 것이라든가, 고향을 소재로 한 것, 중심 시어가 동일한  
 것 등이 세트로 묶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출제자가 가장 먼저 제시한 작품은 모두 2세트이다. 1세트는 안도현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과  
 김수영의 '눈', 윤선도의 '견회요', 정철의 '관동별곡'이다. 고전시가는 이 중 한 작품을 선정하  
 자는 것인데, 일관되는 중심 소재인 '눈'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트라고 할 수 있다. 안도현의 '우  
 리가 눈발이라면' 이 비교적 최근에 쓰여진 작품이므로 문학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은 작품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그 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리라는 출제자들  
 끼리의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정철의 '관동별곡' 처럼 너무 많이 알려진 작품을 제재로 가져올

경우, 기출 문항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전반적으로 제재의 길이가 길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세트는 이용악의 ‘넓은 집’과 박두진의 ‘어서 너는 오너라’, 양태사의 ‘야청도의성’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었다. 고향에 대한 화자의 독특한 심회가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한 세트로 구성할 수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용악의 ‘넓은 집’은 형상화가 잘 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박두진의 경우에는 문학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출제된 적이 없다는 점이 선정 이유라는 출제자의 설명이 있었다.

현대시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지적을 출제자가 받아들여서 다른 세트가 구성이 되었는데, ‘야청도의성’과 한하운의 ‘고향’과 ‘보리피리’ 중 한 편, 이용악의 ‘넓은 집’이 그것이다. 이 세트에서는 양태사의 ‘야청도의성’이 고전시가 영역에서 과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활용될 만한지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또 한하운 작품의 주제는 ‘고향’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 소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향 면에서 다른 시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세트 문항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는 하지만, 전체 문항에서 ‘고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작품을 읽는 풍부함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고전시가의 정전성이 문제되면서 고전시가 작품을 박인로의 ‘태평사’로 정하고, 현대시는 박두진의 ‘어서 너는 오너라’와 구상의 ‘초토의 시 1’이 세트로 구성되었다. 구상의 작품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정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2003년 10월 연합학력평가 때 제시되었던 작품이므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작품간에 유사성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단순해 보인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편 박인로의 ‘태평사’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작품이어서 주석을 많이 달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바로 직전 예비평가에도 박인로의 작품이 출제되어서 다양한 작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세트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트가 구성되었는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동 10’과 안민영의 ‘담 안에 ~’ 시조, 정지용의 ‘비’, 조지훈의 ‘낙화(落花)’가 그것이다. 이 세트는 자연물에 대한 인식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세트에 대한 다른 출제자들의 반응은 좋았다. 이 세트 역시 관련 문항을 제작하기에는 용이하나 지나친 연관성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의 다양한 시 경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문은 고정된 상태에서 문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출제자가 제작한 문항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할 시가 많아 정보량이 과다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량을 줄이거나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상태로는 수험생의 능력을 차별하게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평가 상황 자체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토자가 입소하여 문항에 대해 검토한 후, 시 세트 자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작품이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어서 학생들에게 감동이 적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작품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이 다른 출제자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으면서 시 세트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를 수용하여 출제자가 다시 구성한 시 세트는 이현보의 ‘어부단가’, 박목월의 ‘가정’, 김영랑의 ‘독을 차고’였다. 제재는 안착이 되었지만 문제 하나 하나는 여전히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일단 문항끼리 일어나는 간섭 현상을 조정하여야 했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는 문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체할 필요도 있었다. 게다가 이 제재들은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참고서나 문제집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항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세심한 배

려도 필요하였다. 시가 세트 문항을 구성할 때에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이미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세트에 구성하고 있는 제재들을 지문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출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평가해야 할 내용을 문기보다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정 양식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이 완성되었다. 현대시와 고전 시가의 해석상의 차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 등이 출제 과정 내내 논란거리가 되었고,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정전에 가까운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 어려운 점으로 부각되었다.

## 2) 서사 양식

### 가. 현대 소설

현대 소설은 일찌감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으로 제재가 확정되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 빈민의 생활 문제 등을 보여주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작품이며, 과거와 현재의 중첩, 환상적인 분위기, 시점의 이동, 몽타주 기법 등의 형식적인 장치를 동원하여 신선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출제자는 설명하였다. 특히 발췌한 부분은 입주권을 파는 장면을 통해 도시 빈민이 직면한 현실 상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상의 특징도 잘 보여 주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다른 출제자들도 모두 공감하였는데, 문제는 기출 시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였다. 지문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문항을 통해 뭔가 의미 있는 새로운 내용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문항을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문항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출제자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내용의 서사적인 기능을 묻는 문제, 달나라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고 현실 인식을 파악하는 문제, 작품 창작상의 변형 문제, 우화의 형식적인 특성을 매개로 작품을 해석하는 문제 등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안착된 문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인과 관계를 전도시켜 집을 파는 일이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② 감정의 상태를 계산된 수로 표현하여 대상 인식의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 ③ 난장이네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 ④ 서류 몇 장으로 난장이 가족의 생활 기반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⑤ 각각의 서류를 나열하여 집을 파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이질적인 장면을 끼워 넣어 돌발의 효과를 얻고 있다.
- ② ㉡ : 서술의 시점을 이동하는 계기가 된다.
- ③ ㉢ : 아버지를 회상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④ ㉣ : 장면의 병치를 통해 회상으로부터 현실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 ⑤ ㉣ : 의식과 행동이 동일한 차원에서 진행됨을 보여준다.

3. 위 글에 나타난 ‘집’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 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은 몸의 확장으로서 신화적이고 원형적인 공간이다.
- ② 집은 가족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면서 최소한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③ 입주권을 파고 사는 행위를 통해 집이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 ④ 집이 철거되는 모습을 통해 도시 재개발이라는 산업화 시대의 현상을 반영한다.
- ⑤ 집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집이 없다는 것은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보기>는 ‘이상 세계(낙원)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중심으로 위 글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상 세계라든가 낙원을 꿈꾸는 일은 현실이 이상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물을 것도 없이 현실 비판의 표시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대항 이미지로서의 이상 세계가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 그 이미지는 현실을 파괴하는 힘이 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현실의 모습을 수정하는 힘으로 된다.

- ① 달의 이미지는 아버지가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 ② 달의 이미지는 현실의 모습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 된다.
- ③ 달에서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임을 보여준다.
- ④ 행복동은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어 이상 세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 ⑤ 이상 세계인 달의 이미지는 행복동과의 대비에 의해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5. 위 글에 나타난 동화적 발상을 중심으로 소설을 창작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창작 방향 - 동화적 발상법을 활용한다.
- 주제 - 환경 오염의 폐해
- 동화적 발상 - - - - - 어떻게 작품 속에 수용할 것인가.
  - 선과 악, 지배/피지배의 대립 구도
  - 선의 승리
  - 환상적인 요소
  - 현상 속의 여러 해석 가능성 차단
  - (표현 방식-간결하고 단순한 언어 사용)
  - 비유적 표현???

1번의 경우에는 답지가 명료하지 않고, 답지 자체가 너무 눈에 띄는 것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찾아서 답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되었다. 특히 묶은 부분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므로 답지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분을 객관적인 태도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주관적 태도, 즉 강조나 과장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답지 내용이 추상적이고 어려워져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답을 찾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의견이었다.

4번의 경우에도 답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달에서의 생활’을 현실로 볼 것인가 현실에 대

한 추상적 인식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에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다. 또 <보기>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5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문항을 파악할 순 없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답지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항은 기출 문항을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되기는 할 텐데, ‘동화적 발상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이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였다. 사실 퇴행에 의한 현실 부적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항을 창작 관련 문항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작품 내용이나 작가적 성향과 관련된 문항으로 제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례로 난장이가 실제로 달나라에 갔다고 가정하고 소설의 뒷부분을 써 보게 하는 문항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문항에 대한 수정이 가해졌는데, 확정되지 않은 5번의 경우에는 여러 모색이 있었다. 그 중 하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보기>와의 비교를 통해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황석영의 <객지>(1974)는 간척지 공사장 부랑 노동자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소설에서는 역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매개적 인물이 매우 중요하다. <객지>에서는 동혁이라는 매개적 인물을 통해 노동자의 투쟁과 패배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관념적인 문학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작가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나머지 문제는 인물의 의지를 통해 미래의 과제로 남겨둔다. 그 미래는 “꼭 내일이 아니어도 좋다.”의 말에서 보듯 단순히 희망하는 미래가 아니라 언젠가 찾아오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가능한’ 미래이다.

- ① 동혁에 해당하는 인물이 있을 것 같은데..... 지섭이 그런 인물이 아닐까.
- ② 역사의 발전적 방향이란 아무래도 아버지가 가꿨다던 달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
- ③ 매개적 인물과 매개되는 인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형성하지.
- ④ 현실의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해.
- ⑤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현실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군.

이 문항의 경우에는 답지 ③의 ‘매개되는 인물’을 고등학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문항이 앞 문항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 소설의 경우에는 최종 문항이 확정되었는데, 역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기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핵심적인 평가 요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였다. 한편 작품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어서 현대 소설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 과정에서 ‘의식의 흐름’과 같은 용어를 풀어 쓰다 보니 개념 자체가 더 어려워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더 곤란을 겪게 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 나. 수필

수필의 경우에는 제재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짧으면서도 완결된 형태의, 일정 수 이상

의 문항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제시된 제재는 이태준의 '복덕방'이었다. 출제자는 이 작품이 수필의 기본형과 변이형 가운데 변이형의 기본적 특성을 잘 보여 준 작품이라고 보고, 제재와 주제 문제, 정보화 시대에 복덕방을 통해 정서적 변화를 점검하는 문제 등을 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 총 5문항이 제시되었는데, 문항끼리 서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기출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최근작이나 19세기 작품으로 소급하여 학생들에게 비교적 낯선 작품을 제시하거나, 잘 알려져 있는 수필 두 작품을 복합 지문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제시된 작품이 이태준의 '우세(牛歲)'인데, 이 작품은 비교적 다른 출제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제재는 문항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파생되었다. 작품 감상에 대한 출제자들끼리의 해석상의 편차가 컸고, 그로 인해 문항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문항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타파해 나갈 적절한 문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문을 다시 찾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하여 신영복의 '매직펜과 붓', 이어령의 '폭포와 분수'가 복합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내용과 연관된 문제, 글의 관점을 비판하거나 관점에 대해 알아보는 문제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예견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항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나, 문제점으로 인해 아이디어를 살리지 못한 채, 대체시켜야만 했다. 그 문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1>

□ (가)의 <매직펜>과 <붓>의 속성을 대응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매직펜	붓
① 소리	마찰음	피리 소리
② 냄새	자극성의 냄새	묵향
③ 정신	서양	동양
④ 필법	수련이 필요 없음	수련이 필요함
⑤ 은유	인스턴트 시대의 총아	매운 지조의 선비

<예 2>

□ <보기>의 그림을 [A]의 내용과 연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평: 산골의 여름 풍경을 시원스러운 필치와 정정한 먹빛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속에 조용은 시름을 잊고 사색을 즐기고 있다.

- ① 붓의 가는 획을 사용하여 옷주름이나 낚시대 같이 미세한 부분을 실감나게 표현하였군.
- ② 대상에 따라 붓의 필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야.
- ③ 굵은 선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속세를 떠난 지조 있는 선비를 표현하였군.
- ④ 붓의 굵은 획을 사용하여 깎아지른 듯한 바위의 중량감을 표현하였군.
- ⑤ 멀리 보이는 산이나 나무 등은 붓의 유연함을 활용하여 표현하였군.

<예 3>

□ (가)의 관점에서 (나)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편향된 문명 비판적 자세는 현대 문명의 장점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 ② 분수와 폭포로 동양과 서양 사상을 대조하는 것은 자칫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의 차이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 ③ 모든 문화 현상은 독특한 개성과 보편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둘로 나누어서 사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④ 문화는 상대적인 것인데 너무 동양의 관점에서 서양의 문화를 편향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⑤ 정확한 관점이 없이 대상을 모두 옳다고 한다거나 모두 틀리다고 하는 중도적 입장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1〉의 경우에는 작품 속에 들어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단순히 조회만 하면 될 뿐 사고력 측정이라는 언어 영역 시험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다. 〈예 2〉의 경우에는 ‘주종도’라는 그림과 수필의 결합을 시도한 것은 좋은데, 주관적인 해석을 가할 수밖에 없어 문항의 객관성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예 3〉의 경우에는 두 작품에 관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관점을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틀린 진술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필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문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작품의 경우에는 기출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이나 잘 알려진 작품 한 편과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 한 편을 묶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읽기 문학 영역의 출제 과정을 살펴보았다. 문학 영역 출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의 선정이다. 제재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야 하며, 여러 문항이 나올 수 있는 탄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기출 문항을 피해 갈 수 없으면, 그 제재는 비록 초읽기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해도 다시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편 문항을 제작할 때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 기출 문항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품을 바라보는 여러 독자의 해석상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문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른 문항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재 자체가 교체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또, 문항의 전체 안배도 중요하다. 작품 전체의 의미를 묻는 문항, 부분에 대해 묻는 문항, 부분과 부분의 관계를 묻는 문항, 작품의 세세한 의미를 묻는 문항이 골고루 배치되어야 하며, 작가에 대한 정보, 시대 상황에 대한 정보 등 작품 외적 사실과의 연관성을 묻는 문항 내지는 다른 장르로 변형하는 문항, 작품의 단서를 계기로 창의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까지 출제되도록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출제 과정에서 제기되는 출제자와 검토자의 다양한 의문에 충실히 답변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출제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





집 필 진

문 영 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 병 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 영 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언어 영역

---

---

발행일 2004년 12월 일

발행인 정 강 정

발행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

전 화 : (02) 3704-3704

F A X : (02) 3704-3710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ISBN 89-8472-831-4 94370

---

---